

# 金匱要略·腹滿寒疝宿食病脈證并治第十에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校室  
鄭憲瑩 · 徐大善 · 安竣模 · 曹炅鍾

## A Study 'On the Morbid Pulse of Abdominal Fullness, Cold Mounting, and Abiding Food' in the Chapter 10 of Synopsis of Golden Chamber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 Kwang University

Jeong Heon-young · Seo Dae-Seon · Ahn Jun-mo · Cho Gyeong-jong

'On the Morbid Pulse of Abdominal Fullness, Cold Mounting, and Abiding Food' in the Chapter 10 of Synopsis of Golden Chamber that enunciates Abdominal Fullness, Cold Mounting, and Abiding Food is related to the stomach and intestines respectively, and is similar to the region and symptom of disease in the light of both abdominal fullness and symptoms of pain. This chapter was united into one because the formula mentioned in this chapter can be applied to three disease patterns. Abdominal fullness shows the symptoms of distention and unease, but judging from the text as well as a specific formula and symptoms, it follows pain. Accordingly Abdominal fullness dealt with in this chapter is the first consideration and it is a kind of a disease pattern attendant on abdominal pain. Cold Mounting does not mean mounting gi disease but means the abdominal pain. The cause of cold mounting is mainly due to insufficiency of yang gi and oversufficiency of cold evil. And the main symptoms of cold mounting follow the severe pain around the naval and sweating, cold of the extremities, pulse deep and tight. Abiding food is of the same meaning such as damage of food today. Abiding food is now referred to as damage of food. Principles which have set forth in this chapter are put to use of the method of ejection in case that abiding food places in the upper part, precipitation in the lower part. The symptoms of abiding food show that the pulse is slight and slippery and the wrist pulse is both superficial and large and rough in applying the pressure, and the cubit pulse is also slight and superficial as well, and that have diarrhea and have little appetite.

Key Words : Abdominal Fullness, Cold Mounting, Abiding Food, Synopsis of Golden Chamber

## I. 序 論

「腹滿寒疝宿食病脈證第十」은 腹滿·寒疝·宿食 세가지 疾病을 論述하였다. 仲景은 이 세 가지 疾病이 모두 脾胃와 關聯이 있고 또한 脹滿 또는 疼痛의 症狀이 있어서 病位와 症狀이 비슷하며, 또한 본 편에 나

\* 교신저자: 鄭憲瑩,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63) 850-6808, jikjae@wonkwang.ac.kr

와 있는 治方을 세 가지 病證에 서로 應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습하였다.<sup>1)</sup>

腹滿은 ‘肚脹’이라고도 하며<sup>2)</sup> 腹部가 脹滿하고 편안하지 않은 증상이지만<sup>3)</sup> 다만 原文과 具體的인 處方과 症狀으로 미루어 보면 대개 疼痛을 隨伴하므로 본 篇에서 學論된 腹滿은 腹部脹滿이 爲主가 되고 항상 腹部疼痛을 隨伴하는 일종의 病證이라 할 수 있다.<sup>4)</sup> 腹滿에 대하여 『內經』에 많은 논술이 있는데 病機의 측면으로는 濁氣가 上部에 있어서 발생되며, 臟腑의 측면으로는 대개 腸胃와 脾와 關聯되어 있어 太陰과 陽明의 범주에 속하는 病證으로 보았으며, 治療는 虛實과 寒熱을 구분하여 『素問太陰陽明論』의 “陽道는 實하고 陰道는 虛하다(陽道實 陰道虛)”에 의거하여 虛寒證은 太陰을, 實熱證은 陽明을 考慮하였다. 본 篇에서도 腹滿을 實熱證은 胃와, 虛寒證은 脾腎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概括하였다.

寒疝은 일반적으로 陰囊이 차갑고 아프며 腫大되는 증상을 主症으로 하는 疝氣病을 뜻하지만, 『素問長刺節論』에 “病邪가 少腹에 있어서 배가 아프고 大小便을 보지 못하는 것을 疝이라 하니 寒邪로 발생된다.(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 得之寒)”고 한 것과 『說文解字』에 “疝은 腹痛이다.(疝 腹痛也)”고 한 것과 또 本篇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寒邪가 內部에서 凝結되어 發生되는 極烈한 腹痛을 말한다.

宿食은 『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에 “馨飢의 邪氣가 入口로 들어온 것이 宿食이다.(馨飢之邪 從口入者 宿食也)”고 하였듯이 飲食이 消化되지 않고 쌓여서 腹部脹滿하고 트림과 嘔吐泄瀉 및 腹痛이 일어나는 病證을 말한다.

腹滿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發病原因이 多樣하므로 정확히 辨證을 하여야 올바른 治療를 할 수 있다. 寒疝은 寒疝腹痛을 의미하여 後代의 陰囊 또는 辜丸에 발생하는 疝氣와는 다르기 때문에 治療에 있어서도 구별하여야 하며, 宿食

또한 上腕中腕下腕에 따라 吐法과 下法을 사용하여야 하니 자세히 살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본 篇은 腹診과 脈診 뿐만 아니라 望診으로써 腹滿을 辨證하는 간편하고 실질적인 方法과 그에 따라 治療處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腹滿의 診斷과 治療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脈經』, 『千金要方』, 『諸病源候論』 등 여러 醫書에서 인용하고 있어 後代의 醫學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國內에서는 蔡<sup>5)</sup>가 原文의 懸吐와 註釋을 모아둔 연구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校勘과 諸家의 註釋을 考察함으로써 原文을 정확히 해석하고, 본 篇에 나오는 處方이 현재 臨床에서 活用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腹滿의 診斷과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본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總括 및 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1. 原文은 내용에 따라 3章으로 나누고 章名을 달았으며, 條文의 번호와 題目을 달았다.
2. 原文은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sup>6)</sup>을 底本으로 하였다.
3.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sup>7)</sup>를 準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표1>과 같다.
5. 본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표2>와 같고, 註釋의 내용은 懸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1) 張玉清,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 174.  
 2) 成戊己: 腹滿者는 俗謂之肚脹是也라  
 3) 謝觀: 腹中脹滿不寬也  
 4) 陳紀藩 主編, 中國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287.

5)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6) 張仲景 原著, 王叔和 撰次, 林億 校正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 金匱要略方論. 서울, 裕昌德書局. 1960.  
 7)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書名	編著者	略稱
1	金匱要略方論	俞橋	俞本
2	金匱要略直解	沈明宗	沈本
3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4	外臺秘要	王燾	外臺
5	諸病源候論	巢元方	病源
6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7	脈經	王叔和	脈經
8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魏本
9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10	金匱要略淺註補正	唐宗海	唐本
11	金匱要略	李克光	李本

표 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1, 2는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번호	書名	著者
1	金匱要略直解	程林
2	金匱玉函經二注	趙以德·周揚俊
3	金匱要略心典	尤怡
4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等
5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6	金匱要略廣注	李廷
7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8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9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10	金匱要略論注	徐彬
1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12	金匱要略編注	沈明宗

표 2 選注書目

1번은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 Ⅲ. 研究內容

#### 第 1章. 腹滿

##### 1條. 腹滿의 病機와 治法

###### 【原文】

趺陽脈<sup>1)</sup>이 微<sup>2)</sup>弦<sup>3)</sup>하면 法當腹滿이나 不滿者  
는 必便難<sup>2)</sup>하며 兩胠<sup>4)</sup>疼痛이라 此는 虛寒이 從下上  
也<sup>3)</sup>니 以溫藥服之<sup>4)</sup>라

###### 【校勘】

- 1) 趺陽脈: 醫統本에는 “趺陽脈”으로 되어 있다.
- 2) 不滿者 必便難: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 『千金·卷十六·腹脹第七』에는 “不滿者 必下部閉塞 大便難”으로 되어 있다.
- 3) 此虛寒從下上也: 『千金·卷十六·腹脹第七』에는 “此虛寒氣從下向上”으로 되어 있다.
- 4) 以溫藥服之: 醫統本, 徐本, 俞橋本,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當以溫藥服之”로 되어 있다.

###### 【註釋】

- (1) 趺陽脈: 三部九候의 下部人인 足太陰에 속하며 表裏關係인 足陽明胃經의 衝陽穴에서 살핀다.
- (2) 微: 微脈. 微脈은 매우 細하면서 柔軟한 것이 浮沈에 모두 다르지 않다.<sup>8)</sup>
- (3) 弦: 弦脈. 弦脈은 그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다.<sup>9)</sup>
- (4) 胠: 脇也, 갈비 거

###### 【直譯】

趺陽脈이 微하면서 弦하면 마땅히 腹滿이 되나, 腹滿하지 않으면 반드시 大便을 보기 어려우며 양쪽 옆구리가 아프다. 이는 虛寒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 것이니 溫藥을 服用하여야 한다.

###### 【考察】

趺陽脈은 衝陽脈을 가리키는 것으로, 『素問·三部九候論』에 “下部의 人은 足太陰이다.”<sup>10)</sup>고 하였고, 또 “下部의 人으로 脾胃의 氣를 살핀다.”<sup>11)</sup>고 하였으며, 王冰은 이를 “脾脈을 말한다. … 胃氣를 살피는 것은 발등의 위 衝陽부분을 取한다.”<sup>12)</sup>고 하였으니 趺陽脈은 足陽明胃經의 衝陽穴에서 脾胃病을 診察하는 것을 뜻한다.

8)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益山.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100.

9)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益山.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100.

10) 下部人은 足太陰也라

11) 人以候脾胃之氣라

12) 王冰: 謂脾脈也 … … 候胃氣者는 當取足跗之上 衝陽之分이라

‘脈微弦’은 脈이 微하면서 弦한 것을 가리키는 데<sup>13)</sup> 微脈은 氣血이 虛寒한 것이니 臍下에 冷氣가 쌓여 痛症과 泄瀉를 하게 되고<sup>14)</sup>, 弦脈은 肝의 本脈이며 寒證과 痛症을 主宰하니<sup>15)</sup> 趺陽脈이 微하면서 弦한 脈이 나타나는 것은 陽氣는 不足하고 陰寒은 偏盛한 것을 말하니 脾胃가 虛寒하고 厥陰의 氣가 上逆되어 腹滿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腹部에 腹滿이 나타나지 않으면 肝經은 옆구리로 循行하고 肝은 疏泄을 主宰하기 때문에 肝氣가 上逆되면 옆구리가 아프고 陰竅가 막혀서 便難하게 된다.

腹滿의 病機를 徐彬은 脾에 있는 것으로<sup>16)</sup> 보았는데 이는 『靈樞本神篇』에 “脾氣가 實하면 腹脹이 된다(脾氣實則腹脹)”고 한 것과 『靈樞經脈篇』에 “足太陰이 虛하면 鼓脹이 되고, 胃中이 寒하면 腹滿이 된다.(足太陰虛則鼓脹 胃中寒則腹滿)”고 한 것 등을 보면 腹滿은 脾胃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尤怡는 腎虛로 인한 것으로 보았는데<sup>17)</sup> 이는 『素問水熱穴論』의 “腎은 胃의 關門이다.(腎者 胃之關也)”고 한 것에 依據한 것으로 思料된다.

原文에 “이는 虛寒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온 것이니 溫藥을 服用시킨다(此虛寒從下上也 當以溫藥服之)”고 한 것은 本 原因과 治法을 總括한다. 腹滿은 물론, 便難과 兩脇痛은 모두 脾胃가 虛寒하고 肝氣가 上逆된 것이므로 마땅히 溫藥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 2條. 腹滿의 虛實鑑別

13) 李克光: 脈微弦은 是指脈微而弦이라  
 14) 李樞: 微는 乃氣血虛寒이니 臍下冷積하여 作痛作瀉라  
 15) 李樞: 弦은 爲血弱有勞傷하고 中虛且寒停飲漿하며 胸脇痛體拘急이라  
 16) 徐彬: 趺陽脈微弦은 微者陽虛오 弦者客寒이니 虛而受寒하고 腹者脾主之니 焉得不滿이리오 內經에 曰 臟寒生滿病이라하니라 設不滿하면 是脾胃所有熱邪하니 卽避實而襲虛 故로 寒束其熱而 便反難하고 邪襲兩脇而結於其下하여 乃兩脇痛이라  
 17) 尤怡: 跗陽은 胃脈也오 微弦은 陰象也라 以陰加陽하여 脾胃受之則爲腹滿이오 設不滿則陰邪必旁攻脇肋하여 而下閉穀道하여 爲便難하고 爲兩脇疼痛이라 然이나 其寒不從外入而從下上 則病自內生이니 所謂腎虛則寒動於中也라 故로 不當散而當溫이라

### 【原文】

病者<sup>1)</sup>腹滿호대 按<sup>(1)</sup>之不痛하면 爲虛오 痛者는 爲實<sup>2)</sup>이니 可下之며 舌黃未下<sup>(2)</sup>者는 下之면 黃自去<sup>3)</sup>라

### 【校勘】

- 1) 病者: 『玉函』에는 “傷寒”으로 되어 있다.
- 2) 痛者爲實: 『千金卷十六腹脹第七』에는 “按之痛者爲實也”로 되어 있다.
- 3) 黃自去: 『玉函』에는 “黃自去 宜大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 【註釋】

- (1) 按: 抑也, 누를 안
- (2) 未下: 大便不通의 뜻.

### 【直譯】

患者가 腹滿한테 눌러서 아프지 않으면 虛證이고 아프면 實證이니 下法을 쓸 수 있으며 黃色의 舌苔가 있는데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下法을 쓰면 黃苔가 없어진다.

### 【考察】

本 條文은 腹部를 손으로 눌렀을 때 痛症의 有無와 舌苔로 腹滿의 虛實을 辨別하였다. 腹滿에 손으로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은 것은 안에 痰飲·宿食·燥屎가 없는 것으로 곧 虛寒으로 인하여 腹滿한 것이니 溫藥으로 치료해야 하고, 만약 눌러서 아프고 손에 안에 結聚된 痰飲·宿食·燥屎가 만져지면 內實證임을 알 수 있으니 下法을 써야 옳다.<sup>18)</sup>

또한 黃色의 舌苔로도 腹滿의 虛實을 微驗할 수 있으니 黃色의 舌苔는 濕熱이 안에서 熏蒸되어 實證이 되니 下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下法을 쓰면 黃苔와 腹滿이 저절로 없어지며, 黃苔가 없는 것은 虛寒으로 인한 것이니 下法을 쓰면 안 된다.<sup>19)</sup> 黃色의 舌苔는 下法을 쓰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지만 下

18) 沈明宗: 此以手按辨腹滿虛實也라 按之不痛하면 內無痰食燥屎壅滯니 卽知虛寒而滿이니 當以溫藥이오 若按之痛하면 乃以外手而就內結食痰燥屎니 則知內實하니 是可下之라

19) 沈明宗: 而又以舌黃驗定虛實하니 若舌有黃苔하면 卽是濕熱內蒸爲實이니 未經下過에 必須下之면 則黃自去而腹滿自除오 舌無黃苔하면 是近虛寒하니 又非下法矣라

法을 쓸 수 있는 證에 舌苔가 반드시 黃色이지는 않으니 가령 積水·痰飲·瘀血 등은 下法을 쓸 수 있는 證이지만 舌苔가 모두 黃色이지는 않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sup>20)</sup>

虛寒으로 인한 腹滿에는 四逆湯 또는 附子理中湯을 사용하고<sup>21)</sup>, 燥屎와 宿食이 있는 實證에는 承氣湯類와 大柴胡湯類를, 舌苔가 黃色 또는 焦黑色일 경우에는 大承氣湯을 쓴다.<sup>22)</sup>

### 3條. 虛寒腹滿

【原文】

腹滿이 時減이라가 復<sup>(1)</sup>如故<sup>(1)</sup>면 此爲寒이니 當與<sup>(2)</sup>溫藥<sup>(2)</sup>이라

【校勘】

- 1) 腹滿時減復如故: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腹滿時減 減復如故”로 되어 있다.
- 2) 當與溫藥: 『千金·卷十六·腹脹第七』에는 “當得溫藥”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復: 재也, 다시 부
- (2) 與: 施予, 줄 여

【直譯】

腹滿이 때로 減少되었다가 다시 腹滿이 발생하면 寒證이니 溫藥을 投與해야만 한다.

【考察】

본 條文에서 서술하고 있는 腹滿은 脾胃虛寒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脾胃의 運化機能이 減退되어 발생한 것이니 『素問·異法方宜論』에 “臟寒生滿病”이라 말한 것이 이것이다.<sup>23)</sup> 陽氣가 간혹 正常的으로 運行되

면 腹滿이 잠시 輕減되지만 陽虛한 상태가 항상 끝나지 않을 이기지 못하여 陰이 다시 陽을 이기면 腹滿이 다시 전처럼 된다. 實熱로 인한 腹滿과 같이 항상 腹滿하지 않으나 比較的 조금은 輕減되니 虛寒에 속한다. 마땅히 溫藥으로써 補陽散寒하는 것이 곧 定法이 된다.<sup>24)</sup>

본 條文에 제시된 處方은 없으나 吳謙은 『傷寒論·太陰篇』에 의거하여 “宜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主之”를 보충하였다.<sup>25)</sup>

### 4條. 腹滿의 危候

【原文】

病者痿黃<sup>(1)</sup>하고 躁<sup>(2)</sup>而不渴<sup>(1)</sup>하면 胸中寒實이니 而利不止者<sup>(2)</sup>는 死라

【校勘】

- 1) 躁而不渴: 醫統本·徐本·沈本·尤怡本 『金鑑』에는 “燥而不渴”로 되어 있다.
- 2) 胸中寒實 而利不止者: 『脈經·卷十·平嘔吐噎下利脈證第十四』에는 “胃中寒實 而下利不止者”로 되어 있다.

【註釋】

- (1) 痿黃: 萎黃과 같은 뜻으로, 안색에 핏기가 없고 누렇다는 뜻.
- (2) 躁: 與趨同, 조금할 조

【直譯】

患者의 顏色이 痿黃하고 煩躁하되 渴症이 없으면 胸中에 寒邪가 實한 것이니 泄瀉가 그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考察】

患者의 顏色이 痿黃한 것은 脾氣가 衰敗한 것이며, 煩躁하지만 渴症이 없는 것은 裏熱이 없는 陰盛

20) 李克光: 舌黃은 雖爲可下條件之一이나 但可下之證이 舌苔未必皆黃하니 如積水痰飲瘀血等實證可下者는 舌苔大都不黃하니 這些也應當注意라

21) 曹家達. 金匱發微. 臺北. 志遠書局. 2002. p. 100, 101.

22) 曹家達. 金匱發微. 臺北. 志遠書局. 2002. p. 101.

23) 陳兆桓: 本條의 腹滿은 是由脾胃虛寒하여 運化功能減退所致니 素問異法方宜論說 臟寒生滿病은 卽指此而言이라

24) 沈明宗: 陽氣或運如常하면 滿則時減이나 而陽虛終無恒期 勝陰하야 陰復勝陽則滿復如故라 不似實熱常滿이나 減不足言之比하니 是屬虛寒이라 當以溫藥으로 補陽散寒이 乃爲定法이라

25) 吳謙 等編. 醫宗金鑑訂正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30.

陽微한 것이니<sup>26)</sup> 胸中에 寒邪가 實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여기에서의 煩躁는 陰躁이다.

吳謙은 ‘躁而不渴’은 ‘燥而不渴’이라야 文章이 順하게 通한다. ‘胸中寒實’은 ‘胃中寒實’이 맞다. 만약 胸中에 寒邪가 實하다면 어떻게 泄瀉가 그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傳寫의 誤謬이라<sup>27)</sup>고 하였으니 이 說을 參考할 만하다.

預後는 脾胃가 衰敗하고 寒邪가 極盛하기 때문에 泄瀉가 그치지 않으면 죽는데, 脾陽이 不足하여 寒邪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泄瀉를 하여 中氣가 脫盡하기 때문에 死證이 된다. 그러나 曹家達은 仲景이 반드시 죽는다고는 하였으나 白朮附子로써 回陽하고, 去濕하는 赤石脂禹餘糧을 사용하여 下焦를 固澁하면 간혹 한 둘은 살릴 수 있다<sup>28)</sup>고 하였으니 참고할 만 하다.

### 5條. 寒腹痛의 脈症

#### 【原文】

寸口脈弦者<sup>1)</sup>는 卽脇下拘急而痛이니 其人이 嘔噦<sup>(1)惡寒也<sup>2)</sup></sup>라

#### 【校勘】

- 1) 寸口脈弦者: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右手寸口脈弦者”로, 『病源·卷十六·脇痛候』에는 “寸口脈雙弦”으로 되어 있다.
- 2) 嘔噦惡寒也: 『病源·卷十六·脇痛候』에는 “澁澁而寒”으로 되어 있다.

#### 【註釋】

- (1) 嘔噦: 추위로 움츠러든 상태<sup>29)</sup>를 말한다.

#### 【直譯】

寸口脈이 弦하면 脇下가 당기고 아프니 그 患者가 몸을 움츠리고 추운 것을 싫어한다.

26) 喻昌: 痿黃은 乃中州土敗之象이오 躁而不渴은 乃陰盛陽微之象이라

27) 吳謙 等: 躁而不渴은 當是燥而不渴이라야 文始通順이오 胸中寒實은 當是胃中寒實이라 若是胸中寒實이면 如何曰下利不止者死리오 皆是傳寫之譌라

28) 曹家達: 仲景以爲必死나 然이나 用大劑朮附以回陽하고 用去濕之赤石脂禹餘糧하야 以止澁下焦하면 或亦當挽救一二也라

29) 李克光: 形容瑟縮畏寒의 狀態

#### 【考察】

寸口脈은 表를 주재하고, 弦脈은 寒證과 痛症을 주재하니 寸口에 弦脈이 나타나는 것은 寒邪가 表部에 있는 것이므로 추위를 싫어하여 몸을 움츠리고, 脇下는 肝經이 循行하는 部位이므로 脇下가 당기고 아픈 것은 寒邪가 肝經에 침범하여 病이 된 것이다.

曹家達은 본 條文의 경우에 葛根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sup>30)</sup>

### 6條, 7條. 中寒

#### 【原文】

夫中寒家<sup>1)(1)</sup>는 喜欠<sup>(2)</sup>하고 其人이 清涕<sup>(3)</sup>出하나 發熱色和者는 喜噦<sup>(2)</sup>라

中寒에 其人이 下利는 以裏虛也며 欲噦不能하면 此人肚中寒이라 一云痛이라

#### 【校勘】

- 1) 夫中寒家: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凡人中寒者”로 되어 있다.
- 2) 喜噦: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善噦”로 되어 있다.

#### 【註釋】

- (1) 中寒家: 中焦가 늘 찬 환자. 脾胃虛寒으로 생긴다.
- (2) 欠: 張口解氣, 하품할 흡
- (3) 清涕: 멀건 콧물.

#### 【直譯】

脾胃가 虛寒한 사람은 하품을 자주 하고 말간 콧물이 나오나, 發熱하고 안색이 正常인 사람은 재채기를 자주 한다.

寒邪가 陽明經에 직접 침범하여 患者가 泄瀉를 하는 것은 裏가 虛한 것이며, 재채기를 하려고 하나 하지 못하면 이 患者는 肚中이 寒한 것이다.(어느 곳에는 아프다고 하였다.)

#### 【考察】

30) 曹家達. 金匱發微. 臺北. 志遠書局. 2002. p. 102.

67條는 寒邪가 侵犯함에 體質과 邪氣를 받는 部位의 深淺의 차이로 인하여 症狀에 區別이 있음을 논하였다. 寒邪에 微甚의 차이가 있으니 寒邪가 輕한 경우에는 肺에 있어서 表寒이 되고, 重한 경우에는 肚腹에 있어서 裏寒이 된다.<sup>31)</sup> 따라서 6條는 表寒, 7條는 裏寒에 속한다.

6條에 하품을 자주 하는 것은 表寒이 盛하여 陽氣를 引入하는 陰盛引陽하는 것이며<sup>32)</sup>, 『素問宣明五氣篇』에 콧물은 肺의 液(肺爲涕)이라 하였으니 肺寒하면 콧물이 나오며, 寒邪가 侵犯하여 衛氣와 다투기 때문에 發熱이 있으나 아직 營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顏色이 正常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재채기를 자주 하는 것은 차가운 寒邪가 肺로 들어가 肺中の 熱氣와 서로 만나 부딪치기 때문이다.<sup>33)</sup>

7條는 평소에 陽氣가 虛한 사람이 中寒이 된 뒤에 쉽게 脾胃가 損傷된 것을 論하였다.

寒邪가 침범하여 太陰病의 症狀인 下利가 나타나는 이유는 寒水가 太陰으로 들어가서 太陽寒水가 太陰濕土와 뒤섞여서<sup>34)</sup> 脾의 水濕을 運化하는 기능에 障礙를 주기 때문이며, 재채기를 하려고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은 寒邪가 裏部로 들어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sup>35)</sup>

曹家達은 이때에 五苓散을 사용하여 水氣를 小便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治法을 삼았으나<sup>36)</sup>, 『素問宣明五氣篇』에 “腎爲欠爲噓”, 『靈樞口問』에 “腎主爲欠”, 『靈樞九鍼論』에 “腎主欠”이라 한 것을 보면 하품은 腎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下利를 하는 것은 脾胃가 水濕을 運化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이지만 『素問水熱穴論』에 “腎者胃之關也”이라 하였듯이 脾胃는 腎陽의 도움을 받아야 水穀을 腐熟할 수 있으므로

根源은 腎에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五苓散을 사용하는 것은 標治로 思料되며, 본 條文이 陽虛 특히 脾陽虛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오히려 理中湯 등을 사용하여 溫中하는 것이 根治인 것으로 思料된다.

### 8條. 裏寒證을 下法으로 잘못 치료하였을 때의 變症

#### 【原文】

夫瘦人이 繞<sup>(1)</sup>臍痛하면 必有風冷하여 穀氣不行이 어늘 而反下之면 其氣必衝<sup>(2)</sup>이오 不衝者는 心下則痞也<sup>1)</sup>라

#### 【校勘】

1) 心下則痞也: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心下則痞”로 되어 있다.

#### 【註釋】

- (1) 繞: 遶也, 돌릴 요
- (2) 衝: 動也, 충돌일 충

#### 【直譯】

瘦瘠한 사람이 배꼽 주위가 아프면 반드시 風冷이 있어서 飲食을 消化시키지 못하거늘 도리어 下法을 쓰면 正氣가 반드시 上衝하게 되고, 上衝하지 않으면 명치 밑이 그득하면서 더부룩하게 된다.

#### 【考察】

瘦瘠한 사람은 臟腑의 氣가 虛弱하여 風冷의 邪氣가 쉽게 侵入한다. 風冷의 邪氣가 侵入하면 穀氣가 머물러 消化되지 않아서 배꼽 주위가 아파서 마치 裏實證과 같지만 실제로는 虛冷한 것이기 때문에 溫藥으로써 脾胃의 運行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만약 醫師가 이를 알지 못하고 下法을 쓰게 되면 머물러 있는 穀氣는 疏通되지만 風冷한 邪氣가 함께 나오지 않아 正氣가 더욱 虛하게 되어 邪氣를 制壓하지 못하여 반드시 正氣가 上衝하며, 만약 上衝하지 않으면 中焦의 脾胃를 침범하여 痞證이 된다.<sup>37)</sup>

37) 尤怡: 瘦人臟氣虛弱하여 風冷易入하니 入則穀氣留滯不行하여 繞臍疼痛하여 有似裏實 而實爲虛冷하니 是宜溫藥以助脾之行者也라 乃反下之면 穀出而風冷不與俱出하여 正

31) 曹家達: 寒有微甚不同하니 輕者在肺하니 是爲表寒이오 重者在肚하니 是爲裏寒이라  
 32) 吳謙: 中寒喜欠者는 是陰盛引陽也라  
 33) 曹家達: 善噓者는 清寒入肺竅하여 肺中熱氣與之相衝激也오 體中之血與寒相亢 故로 發熱이오 寒不入營 故로 色和라  
 34) 曹家達: 太陽寒水가 與太陰濕土로 混雜하니 病在脾而不在于胃也라  
 35) 曹家達: 寒入於裏하여 不得外泄 故로 欲噓不得이라  
 36) 曹家達: 此時惟有重用五苓散하여 使水氣從小便出하면 庶爲近之라

瘦瘠한 사람이 배꼽주위로 아픈 것은 寒邪가 쌓인 것이므로 四逆湯 또는 理中湯으로 치료해야 하는데<sup>38)</sup>, 이를 도리어 瀉下하여 上衝하게 되면 『傷寒論 太陽病篇』에 “太陽病을 瀉下한 뒤에도 그 氣가 上衝하는 것은 桂枝湯을 投與하되 處方은 前法을 사용할 것이고, 만약 上衝하지 아니하면 이 處方을 投與하지 못한다.”<sup>39)</sup>고 하였으니 桂枝湯으로 치료하고, 만약 上衝하지 않고 心下痞가 있으면 虛實을 짐작하여 瀉心湯으로 치료한다.<sup>40)</sup>

9條. 厚朴七物湯證

【原文】

病腹滿이나 發熱하고 十日<sup>1)</sup>에 脈浮而數하며 飲食如故하면 厚朴七物湯<sup>2)</sup>主之라

厚朴七物湯方

厚朴半斤 甘草三兩 大黃一兩<sup>3)</sup> 大棗十枚 枳實五枚 桂枝二兩 生薑五兩

右七味를 以水一斗로 煮<sup>1)</sup>取四升하야 溫服八合호대 日三服이라 嘔者는 加半夏五合이오 下利면 去大黃이오 寒多者는 加生薑至半斤이라

【校勘】

- 1) 病腹滿發熱十日: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病腹滿 發熱十數日”로 되어 있다.
- 2) 厚朴七物湯: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厚朴三物湯”으로 되어 있다.
- 3) 甘草三兩 大黃一兩: 醫統本에는 “甘草 大黃各三兩”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煮: 藥물을 淸水 또는 液狀의 酢나 藥汁 등의

乃益虛하고 邪乃無制하야 勢必犯上無等하고 否亦竊據中原也라

38) 曹家達: 治此者即宜四逆理中湯이라

39) 張仲景: 太陽病 下之後에 其氣上衝者는 可與桂枝湯이니 方用前法이오 若不上衝者는 不可與之라

40) 曹家達: 若不上衝而心下痞하면 便當斟酌虛實而用瀉心湯矣라

補助材에 넣어서 조금 끓이고 그 毒性을 弱하게 하고 藥物의 純度를 높이는 것. \* 煮: 烹也, 다릴 자

【直譯】

患者가 腹滿하나 發熱하고 十日이 지나도록 脈이 浮數하며 飲食은 평소처럼 잘 먹으면 厚朴七物湯으로 치료한다.

厚朴七物湯方

厚朴半斤 甘草三兩 大黃一兩 大棗十枚 枳實五枚 桂枝二兩 生薑五兩

위의 일곱 가지 藥물을 물 一斗로 四升이 되도록 달여서 八合을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服用한다. 嘔吐를 하는 患者는 半夏五合을 加味하고, 下利하는 경우에는 大黃을 빼고, 寒多한 경우에는 生薑을 半斤까지 加味한다.

【考察】

본 條文은 表證을 兼한 腹滿의 治療에 대한 것이다. “病腹滿 發熱十日”에 대하여 吳謙은 “腹滿은 裏證이고, 發熱은 裏熱이다.”<sup>41)</sup>고 하여 發熱을 裏熱로 보았고, 尤怡는 “腹滿은 裏部에 實邪가 있는 것이고, 發熱과 脈浮數은 表部에 邪氣가 있는 것이다.”<sup>42)</sup>고 하여 發熱을 表熱로 보았다.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法』에 陽明病의 外證을 “身熱 自汗出 不惡寒 反惡熱”이라 한 것에 比較하여 본 條文에 단지 發熱이라 한 것은 表熱로 思料된다.

飲食을 평소처럼 잘 먹는 것은 胃가 아직 病들지 않은 것이니 條文 전체의 뜻은 裏熱證인 腹滿에 發熱·脈浮數하고 飲食을 평소처럼 잘 먹는 表證이 함께 나타난 것이다.

치료는 厚朴七物湯으로 하였는데, 大黃·厚朴·枳實의 小承氣湯과 桂枝湯에서 芍藥을 뺀 桂枝去芍藥湯을 合方한 것으로서, 小承氣湯으로 攻裏를 하고 桂枝去芍藥湯으로 表證이 풀리지 않은 것을 치료한 表裏雙解의 方法이다. 桂枝湯에서 芍藥을 뺀 이유는 본 條文의 腹滿이 痛症이 없기 때문이다.

厚朴七物湯을 사용하여 譚<sup>43)</sup>은 食傷을 兼한 感冒

41) 吳謙: 病腹滿은 裏證也오 發熱은 裏熱也라

42) 尤怡: 腹滿은 裏有實也오 發熱脈浮數은 表有邪也라

43)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를, 趙<sup>44</sup>)는 腹滿을, 張<sup>45</sup>)은 腸梗塞을 치료한 예를 報告하였다.

10條. 附子粳米湯證

【原文】

腹中寒氣로 雷鳴<sup>(1)</sup>切痛하고 胸脇逆滿 嘔吐하면 附子粳米湯主之라

附子粳米湯方

附子一枚炮<sup>(2)</sup> 半夏半升 甘草一兩 大棗十枚 粳米<sup>(4)</sup>半升炒<sup>(3)</sup>熟<sup>(1)</sup>

右五味를 以水八升으로 煮米熟하야 湯成去滓하고 溫服一升호대 日三服이라

【校勘】

1) 半升炒熟: 醫統本에는 “半升”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雷鳴(뇌명): 腹中雷鳴 또는 腸中雷鳴이라고도 함. 배가 끓으면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腸鳴보다 심한 것이다.

(2) 炮: 韓藥材를 물에 불려 잿불에 묻어 굵는 것을 말한다.

(3) 炒: 韓藥材를 달군 가마나 적당한 장치에 넣고 고루 저어주면서 볶는 것을 말한다.

(4) 粳米(강미): 멥쌀.

【直譯】

腹中の 寒氣로 인하여 배가 끓으면서 腹中에 雷鳴이 발생하고 끓어질 듯 매우 아프며 胸脇部가 그득하게 차오르고 嘔吐를 하면 附子粳米湯으로 치료한다.

附子粳米湯方

附子一枚 炮한다. 半夏半升 甘草一兩 大棗十枚 粳米半升 볶아서 익힌다.

위의 다섯 가지 약재를 물 八升으로 粳米가 익을 때까지 끓여서 湯을 만들어 찌꺼기를 버리고 一升씩을 따뜻하게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本 條文은 脾胃가 虛寒하여 발생된 腹痛의 證治를 논하였다.

脾胃가 虛寒하면 水濕을 運化하지 못하여 水濕이 안에 停滯되고, 寒氣와 水濕이 腸胃로 들어가므로 雷鳴하고, 寒氣가 太陰의 部分인 腹部에 멩쳐서 切痛하게 되고, 陽氣가 上部에서 虛하여 腎에 있던 虛寒한 氣가 脾胃의 陽虛한 것을 틈타 上部를 侵犯하기 때문에 胸脇部가 逆滿하고 嘔吐를 하게 된다.<sup>46)</sup>

本 條文의 病機가 脾胃가 虛寒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切痛’이라 표현한 통증의 樣相은 따뜻하게 하거나 누르면 통증이 輕減되고, 嘔吐의 樣相은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혹은 맑은 물을 吐할 것으로 思料된다.

胸脇部가 그득한 것에 대하여 李炡는 肝木이 侮한<sup>47)</sup> 것으로 보았고, 『靈樞五邪』에 “邪氣가 脾胃에 있어서 陽氣는 不足하고 陰氣가 有餘하면 寒氣가 侵犯하여 腸鳴腹痛한다(邪在脾胃 … 陽氣不足 陰氣有餘 則寒中腸鳴腹痛)”고 하였고, 『素問學痛論』에 “寒氣가 腸胃에 侵犯하므로 아프면서 嘔吐를 한다(寒氣客於腸胃 故痛而嘔也)”고 하였으니 脾胃의 陽氣가 不足하고 虛寒이 盛하여 쉽게 肝木이 脾胃를 손상시키기 故로 思料된다.

치료는 당연히 溫中祛寒하고 降逆止嘔하여야 하니 附子粳米湯을 사용하였는데, 附子는 溫中散寒하고, 半夏는 逆亂된 氣를 豁고, 粳米·甘草·大棗는 脾胃를 實하게 한다.<sup>48)</sup>

附子粳米湯을 사용하여 矢<sup>49)</sup> 등은 胃痙攣·幽門狹窄·胃潰瘍·膽石症·腹膜炎으로 인한 腹痛을, 周<sup>50)</sup>는 泄瀉를 치료한 예를 報告하였다.

46) 曹家達: 水走腸間 故로 雷鳴이오 寒氣結於太陰部分 故로 切痛이라 …… 胸脇逆滿而嘔吐者는 陽虛於上而腎藏虛寒가 乘中陽之虛而上僭也라

47) 李炡: 腹中者는 脾胃過脈之處니 雷鳴切痛 胸脇逆滿 嘔吐는 皆脾胃受寒하야 虛而上逆하야 爲肝木所侮也라

48) 李炡: 附子는 溫中爲主오 半夏는 散逆하고 甘草大棗粳米는 以實脾也라

49) 矢數明道, 李文瑞 等譯: 臨床應用漢方處方解說,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374

50) 周脈方. 附子粳米湯加味治泄瀉. 山東中醫雜誌. 1983. vol4. p. 14.

159.  
44) 趙明銳. 經方發揮.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2. p. 106.  
45) 張有俊. 經方臨證集要. 石家壓. 河北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08.

11條. 厚朴三物湯證

【原文】

痛而閉者는 厚朴三物湯主之<sup>1)</sup>라

厚朴三物湯方

厚朴八兩 大黃四兩 枳實五枚

右三味를 以水一斗二升으로 先煮二味하야 取五升 하고 內<sup>(1)</sup>大黃하야 煮取三升하야 溫服一升이오 以利爲度<sup>(2)</sup>라

【校勘】

1) 痛而閉者 厚朴三物湯主之: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病腹滿 發熱十數日 脈浮而數 飲食如故 厚朴三物湯主之”로 되어 있다.

【註釋】

(1) 內: 入也, 들일 납

(2) 度: 程度, 정도 도

【直譯】

배가 아프고 大便을 보지 못하는 환자는 厚朴三物湯으로 치료한다.

厚朴三物湯方

厚朴八兩 大黃四兩 枳實五枚

위의 세 가지 藥材를 물 一斗二升으로 먼저 厚朴 枳實을 五升이 되도록 달인 뒤에 大黃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따뜻하게 服用하고, 泄瀉를 하는 것으로 基準을 삼는다.

【考察】

본 條文의 病機는 實熱이 안에 쌓이고 氣滯하여 腹部가 脹滿하고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앞의 厚朴七物湯을 사용한 9條와 比較할 때, 9조는 發熱을 同伴한 表裏同病인 반면에, 본 조문은 發熱이 없이 腹痛과 大便閉만 있는 것이므로 厚朴七物湯에서 表證인 發熱을 치료하기 위한 桂枝·甘草·大棗·生薑을 빼 厚朴三物湯을 사용하였다.

厚朴三物湯은 처방구성이 小承氣湯과 같으나, 小承氣湯이 大黃을 君藥으로 삼아 實한 것을 쓸어내리는 것을 爲主한 반면에, 厚朴三物湯은 厚朴을 君藥으로 삼아 行氣를 爲主하였다.

厚朴三物湯을 사용하여 何<sup>51)</sup>는 腸閉塞을, 李<sup>52)</sup>는

腸麻痺를 치료한 예를 報告하였다.

12條. 大柴胡湯證

【原文】

按之에 心下<sup>(1)</sup>滿痛者는 此爲實也라 當下之니 宜大柴胡湯主之<sup>1)</sup>라

大柴胡湯方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升洗<sup>(2)</sup> 枳實四枚炙<sup>(3)</sup> 大黃二兩 大棗十二枚 生薑五兩

右八味를 以水一斗二升으로 煮取六升하야 去滓再煎하야 溫服一升호대 日三服이라

【校勘】

1) 宜大柴胡湯主之: 醫統本에는 “宜大柴胡湯”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心下(심하): 명치 끝

(2) 洗: 물로 藥物의 表面에 붙어 있는 흙이나 그 외의 不純物을 씻어 내는 것으로, 藥물의 특성에 따라 유효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씻어서 햇볕이나 60℃ 안팎의 건조실에서 빨리 말린다>(\* 洗: 滌也, 씻을 세)

(3) 炙: 藥材와 補助材를 동시에 넣고 熱을 가하여 볶거나 구워서 補助材를 藥材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으로 ‘습炒’라고도 한다. 補助材料로는 꿀물, 식초, 술, 소금물, 생강즙, 쌀 씻은 물, 기름, 소젖, 양젖 등을 쓴다.

【直譯】

눌렀을 때 명치가 그득하고 아픈 경우는 實證이니 마땅히 下法을 써야하니 大柴胡湯으로 치료함이 마땅하다.

大柴胡湯方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升 물에 씻는다. 枳實四枚 불에 굽는다. 大黃二兩 大棗十二枚 生

51) 何華廷. 厚朴三物湯治療腸梗阻130例臨床觀察. 湖北中醫. 1984. vol1. p. 24.

52) 李德啓. 厚朴三物湯加味治療小兒中毒性腸麻痺28例. 浙江中醫. 1988. vol10. p. 446.

薑五兩

위의 여덟 가지 藥材를 물 一斗二升으로 六升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달여서 一升씩을 따뜻하게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은 명치끝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의 치료를 서술한 것으로, 이는 少陽病과 陽明病이 兼하여 나타난 것이다. 명치를 눌러서 답답하고 아픈 것은 有形한 實邪가 있는 것이므로<sup>53)</sup> 2條에 “腹滿한데 눌러서 아프지 않으면 虛證이고 아프면 實證이니 下法을 쓸 수 있다.(腹滿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可下之)”고 말한 바와 같이 下法을 써야 하나, 承氣湯類를 쓰지 않고 大柴胡湯으로 치료하였다. 大柴胡湯은 小柴胡湯과 小承氣湯을 合方加減한 것으로서, 少陽病이 낫지 않고 邪熱이 陽明經으로 들어가 寒熱往來·胸脇苦滿·口苦咽乾目眩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면서 嘔逆이 나고 해 질 무렵에 潮熱이 난 다음 泄瀉하는 등의 少陽病에 陽明裏實을 兼할 때 사용한다. 본 條文의 病機가 實證인 점에서 앞의 11條처럼 小承氣湯을 사용하여야 할 것 같으나, 痛症이 心下에 있어서 邪氣가 아직 六府로 들어가지 않아 邪熱이 깊지 않으므로 小承氣湯을 쓸 수 없고, 또한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어서 비록 熱實이 되지는 않았으나 寒邪가 점차 熱로 변화되기 때문에 發汗과 瀉下시킬 수도 없으므로 小柴胡湯으로 和解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 條文의 症狀은 正氣가 아직 虛하지 않기 때문에 人參·甘草를 빼서 邪氣가 머무르지 않도록 하였고, 大便閉가 없으므로 厚朴을 뺐으며, 實邪가 壅滯하여 心下가 急痛하므로 大黃·枳實로 熱結을 瀉하며, 芍藥은 斂陰和營하고 腹中の 急痛을 緩和시켜서 裏部의 實邪를 攻下하고 兼하여 和解시켰다.<sup>54)</sup>

大柴胡湯을 사용하여 葛 등<sup>55)</sup>은 膽囊炎·膽石症을, 夏<sup>56)</sup>는 急性脾臟炎을, 珠<sup>57)</sup>는 膽囊 切除後의 症狀을,

53) 尤怡: 按之而滿痛者는 爲有形之實邪니 實則可下라  
54) 李炆: 凡痛在腹中者는 邪已入府 故로 宜大下라 此滿痛在 心下하고 未全入府하여 邪熱未深 故로 不用大承氣而用大 柴胡이니 于攻裏之中仍兼和解之法이오 此心下與腹中有 上下深淺之別也라  
55) 葛玉蓮 等. 大柴胡湯加減治療膽囊炎·膽石症急性發作47 例. 四川中醫. 1995. vol8. p. 28.  
56) 夏斌. 大柴胡湯治療胰腺炎. 新疆中醫藥. 1989. vol4 p. 46.

姚<sup>58)</sup>는 病毒性肝炎을, 周 등<sup>59)</sup>은 痙攣性 腸閉塞을, 巴<sup>60)</sup>는 十二指腸潰瘍을, 黃<sup>61)</sup>은 脂肪肝을, 潘<sup>62)</sup>은 膽 汁逆流性胃炎을, 熊<sup>63)</sup>은 高脂血症을 치료한 예를 報 告하였다.

13條. 大承氣湯證

【原文】

腹滿이 不減이오 減이나 不足言이면 當須下之<sup>1)</sup>니 宜大承氣湯主之<sup>2)</sup>라

大承氣湯方

大黃四兩酒洗 厚朴半斤去皮炙 枳實五枚炙 芒硝三合 右四味를 以水一斗로 先煮二物하여 取五升하여 去滓하고 內大黃하여 煮取二升하고 內芒硝하여 更<sup>1)</sup> 上火하여 微一二沸<sup>2)</sup>하고 分溫再服이오 得下면 餘勿 服<sup>3)</sup>이라

【校勘】

- 1) 當須下之: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 一』에는 “當下之”로 되어 있다.
- 2) 宜大承氣湯主之: 醫統本에는 “宜大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 3) 得下 餘勿服: 醫統本에는 “得下 止服”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更: 再也, 다시 갠
- (2) 沸: 沸騰, 끓을 비

57) 珠樹成. 大柴胡湯加味治療膽囊切除後綜合症. 上海中醫 藥. 1996. vol2. p. 6.  
58) 姚廣峯. 大柴胡湯加味治療急性黃疸型肝炎196例. 陝西中 醫. 1995. vol5. p. 223.  
59) 周建宣 等. 大柴胡湯治療高鉛飲用水致痙攣性腸梗阻10例. 福建中醫藥. 1996. vol1. p. 1.  
60) 巴雅彌圖. 大柴胡湯加減治療十二指腸球部潰瘍34例. 實用 中西醫結合雜誌. 1993. vol5. p. 292.  
61) 黃河清. 大柴胡湯加減治療脂肪肝18例. 福建中醫藥. 1995. vol6. p. 43.  
62) 潘建華 等. 大柴胡湯治療膽汁返流性胃炎及遠期療效觀察. 國醫論壇. 1994. vol5. p. 14.  
63) 熊銀松. 大柴胡湯治療內科疾患應用進展. 陝西中醫. 1995. vol5. p. 235.

【直譯】

腹滿이 매우 甚하여 持續的으로 輕減되지 않고 설령 조금 輕減되었다더라도 輕減되었다고 말하기에는 不足하니 당연히 瀉下시켜야 하니 大承氣湯으로 치료함이 마땅하다.

大承氣湯方

大黃四兩 酒洗 厚朴半斤 去皮炙 枳實五枚 炙 芒硝 三合

위의 네 가지 藥材를 물 一斗로 먼저 厚朴·枳實 두 가지를 五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그 물에 大黃을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이고, 다시 芒硝를 넣고 불 위에 올려놓아 살짝 한두 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하며, 泄瀉가 나오면 服用을 그친다.

【考察】

본 條文은 腹滿이 輕減되지 않는 것으로써 裏實證을 辨別하였다. 앞의 3條에 “腹滿이 때로 減少되어 예전과 같으면 寒證이니 溫藥을 投與하는 것이 마땅하다.(腹滿時減 復如故 此爲寒 當與溫藥)”라고 한 것은 虛寒證인데 반하여 본 條文은 腹滿이 輕減되지 않는 實證에 속한다.

大承氣湯은 大實·大滿을 치료하는데 ‘滿’은 胸腹이 脹滿한 것이고, ‘實’은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sup>64)</sup> 따라서 반드시 宿食 또는 燥屎가 있기 때문에 腹滿이 조금도 輕減되지 않게 된다.<sup>65)</sup>

調胃承氣湯은 實되되 滿하지 않은 것을 치료하고, 大承氣湯은 大滿·大實을 치료하고, 小承氣湯은 實하고 微滿한 것을 치료하는데, 大承氣湯의 大黃은 苦寒하여 熱을 내리니 『素問·六元正紀大論』에 “攻裏不遠寒”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며, 厚朴은 味가 苦하여 積滯된 것을 運行시키며, 枳實은 下氣하는 것이 가장 빠르므로 脹滿을 없앨 수 있고, 芒硝는 辛味로써 潤燥하고 鹹味로써 軟堅하니 『素問·至真要大論』에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sup>66)</sup>

64)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5. p. 361.  
65) 陳兆桓. 金匱要略精義.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4. p. 148.  
66) 李炆: 大黃은 苦寒瀉熱하니 經에 所謂 攻裏不遠寒이 是也 오 厚朴은 苦以行滯하고 枳實은 下氣最速 故로 能泄滿消

大承氣湯을 사용하여 程<sup>67)</sup>은 腸閉塞을, 孫은<sup>68)</sup> 小兒의 急性腸重疊을, 曾은<sup>69)</sup> 急性膽囊炎을, 韓은<sup>70)</sup> 急性脾臟炎을, 楊은<sup>71)</sup> 流行性出血熱을, 鄧<sup>72)</sup>은 高血壓으로 인한 腦出血을 치료한 例를 報告하였으나, 반드시 裏實證이 있는 경우라야 사용할 수 있다.

14條. 大建中湯證

【原文】

心滿中<sup>1)</sup>이 大寒痛하고 嘔不能飲食하며 腹中이 寒하고 上衝皮起하야 出見有頭足하며 上下痛而不可觸近하면 大建中湯主之라

大建中湯方

蜀椒二合去汗<sup>2)(1)</sup> 乾薑四兩 人參二兩

右三味를 以水四升으로 煮取二升하야 去滓하고 內膠飴<sup>2)</sup>一升하야 微火로 煎取一升半하야 分溫再服이라 如一炊頃<sup>3)</sup>에 可飲粥二升하고 後更服호대 當一日食糜<sup>4)</sup>하고 溫覆<sup>5)</sup>之라

【校勘】

- 1) 心滿中: 醫統本에는 “心胸中”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 2) 二合去汗: 醫統本에는 “二合”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去汗(거한): 蜀椒를 볶아서 기름과 물을 없애는 것을 가리킨다.
- 2) 飴飴(교이): 飴糖의 異名.

脹이오 芒硝는 辛以潤燥하고 鹹以軟堅하니 經에 云 熱淫於內하면 治以鹹寒하고 佐之以苦가 是也라  
67) 程金霖. 復方大承氣湯治療老年性腸梗阻196例. 內蒙古中醫藥. 1993. vol4. p. 20.  
68) 孫玉榮. 鉞劑大承氣湯灌腸整復小兒急性腸套迭. 天津中醫. 1988. vol3. p. 12.  
69) 曾業賦. 大承氣湯加味治療急性膽囊炎75例. 福建中醫藥. 1992. vol1. p. 31.  
70) 韓惠蘭. 大承氣湯加味治療急性胰腺炎48例療效. 遼寧中醫雜誌. 1985. vol2. p. 24.  
71) 楊正如. 大承氣湯在急危症中的運用. 浙江中醫雜誌. 1995. vol4. p. 163.  
72) 鄧必駿. 大承氣湯治療高血壓腦出血3例報告. 中西醫結合雜誌. 1988. vol5. p. 309.

(3) 一炊頃(일취경): 밥이 익을 정도의 시간

(4) 糜: 煮米使糜爛, 죽 미

(5) 覆: 蓋也, 덮을 부

【直譯】

心胸部가 매우 寒冷하면서 아프고 吐를 하여 飲食을 먹을 수 없으며 背속도 寒冷하고 背가죽이 위로 치솟아 불룩하게 만져지며 上下部가 아파서 손을 가까이 댈 수 없으면 大建中湯으로 치료한다.

大建中湯方

蜀椒二合 볶아서 물과 기름기를 없앤다. 乾薑四兩 人參二兩

위의 세 가지 藥材를 물 四升으로 二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膠飴 一升을 넣어서 은근한 불로 一升半이 되도록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밥 짓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죽 二升을 먹고 다시 服用하되 하루 동안 죽을 먹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서 조금 땀을 낸다.

【考察】

본 條文은 虛寒性 腹痛의 症狀과 治療를 서술하였는데, 앞의 10條에 “腹中의 寒氣로 인하여 배가 끓으면서 腹中에 雷鳴이 발생하고 끊어질 듯 매우 아프며 胸脇部가 그득하게 차오르고 嘔吐를 하면 附子粳米湯으로 치료한다.(腹中寒氣로 雷鳴切痛하고 胸脇逆滿嘔吐하면 附子粳米湯主之라)”고 한 것에 비하여 더욱甚한 경우에 해당된다.

陽氣가 上部에서 막히면 陰寒이 下部로부터 乘하니 心胸部는 본래 清陽의 부위이나 陽氣가 虛衰하여 陰氣가 心胸部로 들어와 이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되고, 寒邪가 胃로 들어가면 嘔吐를 하여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sup>73)</sup> 이는 寒邪가 極甚하여 中焦를 막기 때문이다.<sup>74)</sup> 背가죽이 突起되어 마치 머리와 다리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은 寒邪가 甚하게 단단하게 뭉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sup>75)</sup>, 위아래가 모두 아파서 가까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寒氣가 凝結된 것이다. 그러나 裏實의 경우처럼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은 아니다.<sup>76)</sup>

본 條文의 病機는 脾陽이 衰微하여 中焦에 寒邪가 極盛한 것이므로 下法을 써서는 안되고 中氣를 建立하고 溫中散寒하여야 하니 大建中湯으로 치료한다.

大建中湯의 人參과 膠飴는 甘溫하여 脾胃의 中氣가 虛寒한 것을 溫補하고, 蜀椒는 溫中下氣하고, 乾薑은 辛熱하여 溫中散寒하므로 辛熱한 藥材로 寒邪를 蠲고 甘溫한 味로써 脾土를 培養하면 脾胃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으므로 大建中湯이라 하였다.<sup>77)</sup>

大建中湯을 사용하여 吳<sup>78)</sup>는 急性腸閉塞을, 袁 등<sup>79)</sup> 結腸痙攣을 치료한 例를 報告하였다.

15條. 大黃附子湯證

【原文】

脇下偏痛發熱<sup>1)</sup>이나 其脈이 緊弦하면 此는 寒也라 以溫藥下之니 宜大黃附子湯主之<sup>2)</sup>라

大黃附子湯方

大黃三兩 附子三枚炮<sup>3)</sup> 細辛二兩<sup>4)</sup>

右三味를 以水五升으로 煮取二升하야 分溫三服이라 若強人이면 煮取二升半하야 分溫三服호대 服後에 如人行四五里進一服이라

【校勘】

- 1) 脇下偏痛發熱: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脇下偏痛”으로 되어 있다.
- 2) 大黃附子湯主之: 醫統本에는 “宜大黃附子湯”으로 되어 있다.
- 3) 三枚炮: 醫統本에는 “三枚”로 되어 있다.
- 4) 二兩: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三兩”으로 되어 있다.

76) 李炫: 寒氣凝結 故로 上下痛不可觸近이나 非裏實不可按之痛也라

77) 周揚俊: 取辛熱之品하야 以散其邪하고 甘溫之味하야 以培其土則中已圯而復立矣 故로 名曰大建中이라

78) 吳協兵. 大建中湯加減治療急性腸梗阻. 中醫雜誌. 1987. vol5. p. 57.

79) 袁興石 等. 大建中湯治療腹部癱難痛症. 河南中醫. 1990. vol1. p. 28.

73) 曹家達: 陽氣痺於上則陰寒乘於下하고 心胸本清陽之位로 대 陽氣衰而寒氣從之하니 因而作痛이오 寒入於胃 則嘔而不能飲食이라

74) 吳謙: 嘔逆不能飲食者는 是寒甚拒格於中也라

75) 吳謙: 上衝皮起 出見頭足者는 是寒甚聚聚於外也라

【直譯】

한쪽의 脇下가 아프고 發熱하나 脈이 緊弦하면 이는 寒으로 因한 것이다. 溫藥으로 瀉下하여야 하니 大黃附子湯으로 치료함이 마땅하다.

大黃附子湯方

大黃三兩 附子三枚炮 細辛二兩

위의 세 가지 藥材를 물 五升으로 二升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해서 세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 만약 약 平소 體質이 强健한 사람이면 二升半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하되 服用한 뒤에 사람이 四내지 五里를 갈 정도의 시간 뒤에 다시 한 번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은 原文에 “此寒也”라고 지적하였듯이 寒實이 內結된 腹滿痛의 症狀과 治療에 대한 것이다.

弦脈은 肝脈이고 緊脈은 寒邪로 인한 것이며 脇下는 厥陰의 部位이니<sup>80)</sup> 寒邪가 厥陰經의 한쪽에 侵犯하여 營血의 運行이 不利하기 때문에 脇下가 한쪽만 아프다<sup>81)</sup>. ‘發熱’은 陽氣가 鬱結되어 나타나는 것이니 溫藥이 아니면 寒을 없앨 수 없고, 瀉下하지 않으면 凝結된 것을 없앨 수 없으므로 溫藥으로 瀉下시켜야 한다.<sup>82)</sup> 따라서 大黃附子湯의 大黃으로 實한 것을 瀉下하고, 附子로써 溫中하며, 細辛으로써 寒邪를 흠으니 이를 溫藥으로 瀉下하는 것이라 한다.<sup>83)</sup>

大黃附子湯을 사용하여 阮은<sup>84)</sup> 急性腹痛을, 徐는<sup>85)</sup> 急性膽囊炎을, 劉는<sup>86)</sup> 慢性潰瘍性 結腸炎을, 劉는<sup>87)</sup> 腸閉塞을 治療한 例를 報告하였다.

80) 周揚俊: 脇下는 屬厥陰之部分이라  
 81) 沈明宗: 寒客厥陰經之一邊하야 營血不利 則脇下偏痛이라  
 82) 尤怡: 雖有發熱이나 亦是陽氣被鬱所致라 是以로 非溫이면 不能已其寒하고 非下면 不能去其結 故로 曰宜以溫藥下之라  
 83) 李炘: 實者下以大黃하고 加附子溫中하며 細辛散寒하니 是謂以溫藥下之也라  
 84) 阮詩偉: 大黃附子湯治療上腹暴痛20例. 國醫論壇. 1989. vol1. p. 20.  
 85) 徐國樞: 大黃附子湯辨治急性膽囊炎的體會. 天津中醫. 1994. vol5 p. 51.  
 86) 劉大平: 大黃附子湯臨床新用. 湖北中醫雜誌. 1994. vol5. p. 51.  
 87) 劉凡先: 運用仲景瀉下方治療急腹症體會. 浙江中醫雜誌. 1983. vol4. p. 171.

16條. 赤丸證

【原文】

寒氣로 厥逆하면 赤丸主之라

赤丸方

茯苓四兩 烏頭二兩炮 半夏四兩洗 方엔 用桂枝<sup>1)</sup> 細辛一兩 千金엔 作人參이라

右四味를 末之<sup>2)</sup>하고 內眞朱<sup>3X1)</sup>爲色하야 煉蜜<sup>2)</sup> 丸호대 如麻子大<sup>3)</sup>라 先食酒飲下三丸<sup>4)</sup>호대 日再夜一服이오 不知면 稍增之하야 以知爲度<sup>5)</sup>라

【校勘】

- 1) 四兩洗方用桂: 醫統本에는 “四兩洗一方用桂”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으므로 이를 따라 國譯한다.
- 2) 右四味末之: 醫統本에는 “右六味末之”로 되어 있으나 원문이 맞다.
- 3) 眞朱: 醫統本에는 “眞硃”로 되어 있다.
- 4) 先食酒飲下三丸: 『尤本』, 『廣注』, 『趙本』에는 “先食飲 酒下三丸”으로 되어 있다.
- 5) 日再夜一服 不知稍增之 以知爲度: 『陳本』에는 “日再夜一服 不知 稍增 以知爲度”로, 『唐本』에는 “日再服 一服不知 稍增以知爲度”로 되어 있다.

【註釋】

- (1) 眞朱(진주): 朱砂이다.
- (2) 煉蜜(연밀): 熟淸이라고도 한다. 꿀을 약한 불에서 물기가 없어지도록 졸인 것을 말하는데 꿀로 丸藥을 만들 때 쓴다.
- (3) 麻子大(마자대): 丸劑 類型的 하나. 환약을 참깨알 크기만 하게 빚는 것을 말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0.02~0.04g이며, 丸藥의 평균 직경은 4.60mm 정도이다.

【直譯】

寒氣로 인하여 手足厥冷하면 赤丸으로 治療한다.

赤丸方

茯苓四兩 烏頭二兩 炮한다. 半夏四兩 씻는다. 一方에는 桂枝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細辛一兩 千金方에는 人參으로 되어 있다.

위의 네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고 朱砂로 丸衣를

입히되 精製한 꿀로 반죽하여 麻子大로 丸을 만든다. 먼저 飮食을 먹고 술로 세알씩 복용하는데 낮에는 두 번, 밤에는 한 번 服用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조금 增量하여 효과가 날 때까지 복용한다.

【考察】

본 條文은 寒氣厥逆의 治法을 논술하였다.

『傷寒論辨厥陰病脈證并治法』에 “무릇 厥이란 것은 陰陽의 氣가 서로 順調롭게 이어지지 못하여 곧 厥이 된다. 厥은 手足이 厥冷한 것이 이것이다.”<sup>88)</sup>고 하였으니 “寒氣厥逆”은 下焦의 陰寒한 氣가 정상적인 運行을 잃고 위로 거슬러서<sup>89)</sup> 手足厥冷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본 편이 ‘腹滿’에 대한 내용이므로 脾胃陽虛로 말미암아 水飲이 위로 거슬러서 腹滿嘔吐·心下動悸 등의 증상이 隨伴될 수 있다.<sup>90)</sup>

茯苓과 半夏는 上逆된 것을 下降시키고, 烏頭와 細辛은 寒邪를 흠어버리고, 眞朱는 質이 무거우니 이를 넣어서 陰邪가 단단히 뭉친 것을 깨고 上逆된 것을 除去한다.<sup>91)</sup>

본래 寒氣厥逆은 四逆湯을 사용하는 證이지만 본 조문에 四逆湯을 쓰지 않고 赤丸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曹家達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湯劑는 지나가서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新病을 치료할 수 있지만 痼疾을 치료하기 어려우며 둘째, 四逆湯을 사용하는 증상은 脈이 반드시 微細한데, 본 條文의 脈은 沈弦하기 때문인데 脈이 沈弦한 이유는 傷寒의 太陰少陰에는 水氣가 없으나 寒氣가 厥逆되면 水氣가 따르기 때문이다.<sup>92)</sup>

第 2章. 寒疝

17條. 大烏頭煎證

【原文】

腹痛하고 脈弦而緊에 弦則衛氣不行이니 卽惡寒<sup>1)</sup>이오 緊則不欲食이니 邪正相搏<sup>2)</sup>하야 卽爲寒疝이라 遠臍痛若<sup>3)</sup>하고 發則自汗出<sup>4)</sup>하며 手足厥冷하고 其脈沈弦者<sup>5)</sup>는 大烏頭煎主之라

烏頭煎方

烏頭<sup>(1)</sup>大者五枚 熬<sup>(2)</sup>去皮不咬咀<sup>(3)</sup>

右一味를 以水三升<sup>(6)</sup>으로 煮取一升하야 去滓하고 內蜜二升하야 煎令水氣盡하야 取二升하야 強人은 服七合하고 弱人은 服五合호대 不差<sup>(4)</sup>면 明日<sup>(5)</sup>에 更<sup>(6)</sup>服이오 不可日再服<sup>(7)</sup>이라

【校勘】

- 1) 腹痛 脈弦而緊 弦則衛氣不行 卽惡寒: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寸口脈弦而緊 弦卽衛氣不行 衛氣不行卽惡寒”으로 되어 있다.
- 2) 邪正相搏: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弦緊相搏”으로 되어 있다.
- 3) 遠臍痛若: 醫統本에는 “寒疝繞臍痛苦”로, 『千金·卷十六·痼冷積熱第八』에는 “寒疝繞臍苦痛”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따른다.
- 4) 發則自汗出: 醫統本에는 “發則白津出”로, 『金鑑』에는 “發則白汗出”로 되어 있다.
- 5) 其脈沈弦者: 醫統本에는 “其脈沈緊者”로 되어 있다.
- 6) 右一味 以水三升: 醫統本에는 “右 以水三升”으로 되어 있다.
- 7) 不可日再服: 醫統本에는 “不可一日再服”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烏頭: 川烏의 異名.
- 2) 熬: 乾煎, 볶을 오
- 3) 咬咀(부저): 입으로 깨물어서 깨는 의미. 약물을 이로 깨물어서 잘게 만들어 큰 顆粒으로 만들고 물을 넣고 달여서 服用하였다.

88) 張仲景: 凡厥者는 陰陽氣不相順接하야 便爲厥이라 厥者는 手足逆冷이 是也라

89) 尤怡: 寒氣厥逆은 下焦陰寒之氣厥而上逆也라

90) 陳兆桓: 同時에 還應兼有腹痛嘔吐或心下動悸等症이라

91) 尤怡: 茯苓과 半夏는 降其逆하고 烏頭와 細辛은 散其寒하고 眞朱는 體重色正하니 內之以破陰去逆也라

92) 曹家達: 寒氣厥逆은 此四逆湯證也라 然則仲師何以不用四逆湯而用赤丸하니 知此意者는 方可與論赤丸功用이라 蓋湯劑過而不留하니 可治新病이나 不可以治痼疾이니 此同一厥逆이오 四逆湯證은 脈必微細나 赤丸證은 脈必沈弦이라 所以然者는 傷寒太陰少陰엔 不必有水氣而寒氣厥逆卽從水氣得之라

(4) 差: 病癒, 병나을 채

(5) 明日: 다음 날.

(6) 更: 再也, 다시 갠

【直譯】

배가 아프고 脈이 弦하면서 緊하면 弦脈은 衛氣가 運行하지 않는 것이니 곧 惡寒하고, 緊脈은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으니 邪氣와 正氣가 서로 다투어 寒疝이 되니 그 症狀은 배꼽 주위가 아프고 痛症이 發生하면 自汗이 나오고 手足이 厥冷하고 脈이 沈弦한 사람은 大烏頭煎으로 치료한다.

烏頭煎方

烏頭 큰 것 다섯 개 볶아서 껍질을 벗기고 자르지 않는다.

烏頭를 물 三升으로 一升이 되도록 삶아서 찌꺼기를 버리고 꿀 二升을 넣고 수증기가 모두 나가게 하여 二升이 되도록 달여서 體質이 강한 사람은 七合을 服用하고 虛弱한 사람은 五合을 服用하는데 낮지 않으면 다음 날에 다시 服用해야 하지 하루에 두 번 복용해서는 안 된다.

【考察】

寒疝은 일반적으로 陰囊이 차갑고 아프며 腫大되는 증상을 主症으로 하는 疝氣病을 뜻하지만, 본 편에서는 寒邪가 內部에서 凝結되어 發生하는 極烈한 腹痛을 말한다. 疝證은 肝經에 속하며 陰寒冷濕이 原因이 되고, 肝經이 小腹部에 이르기 때문에 단지 小腹部만이 아픈데 여기에서 腹痛과 배꼽주위가 아프다고 한 것은 본 편의 첫머리에 “虛寒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것이다(虛寒從下上也)”를 말하니<sup>93)</sup>, 『素問長刺節論』에 “病邪가 少腹에 있어서 배가 아프고 大小便을 보지 못하는 것을 疝이라 하니 寒邪로 發生된다.(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 得之寒)”고 한 것과 뜻이 통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寒疝은 疝氣病을 뜻하지 않고 寒邪로 인하여 發生된 極烈한 腹痛을 뜻한다.

寒疝의 原因은 寒邪인데, 평소에 體質이 陽虛陰盛하여 裏部에 寒氣가 쌓여 있고 바깥의 寒邪를 불러들

여 表裏에 모두 寒邪가 있어서 發生된다<sup>94)</sup>. 脈이 弦한 것은 衛氣가 正常的으로 運行하지 않아서 表陽이 虛衰하기 때문에 惡寒하게 되니 이는 寒邪가 나와서 外部의 陽氣를 막은 것이고, 脈이 緊한 것은 寒氣가 裏部에서 凝結하여 胃陽이 不振하기 때문에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으니 이는 寒邪가 들어가 胃陽을 막은 것이다.<sup>95)</sup>

따라서 治法은 溫中散寒하고 止痛하여야 하니 大寒大熱하여 散寒逐濕하는 烏頭煎을 사용하였다. 다만 烏頭煎의 藥性이 猛烈하기 때문에 꿀을 넣어서 甘味로 緩和시키고 解毒하였으며, 평소 體質이 강한 사람과 虛弱한 사람의 차이에 따라 用量도 달리 하였으며 또한 하루에 두 번 服用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思料된다.

‘自汗’이 ‘白津’, ‘白汗’로 되어 있기도 한데, 尤怡는 白津은 自汗과 같은 것으로서 汗이 汗맛이 없는 虛汗<sup>96)</sup>이라 하였고, 白汗은 魄汗이라고도 하는데 裏部에 邪氣가 實하면 表가 虛하여 나오는 汗<sup>97)</sup>이므로 自汗과 白汗과 白津은 모두 같은 것으로 思料된다.

“其脈沈緊者”에 대하여 吳謙은 같은 條文에 脈이 重複되어 나오는데 아래의 條文에 症狀만 있고 脈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其脈沈緊者”는 아래 條文의 “裏急”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sup>98)</sup>고 하였으나 李炆은 緊脈은 寒邪이며 沈脈은 邪氣가 裏部에 있는 것이니 沈緊脈은 寒邪가 裏部에 있는 것<sup>99)</sup>으로 보았다. 문장 전체를 보면, “腹痛 脈弦而緊 弦則衛氣不行 卽惡寒 緊則不欲食 邪正相搏 卽爲寒疝 遠臍痛若”과 “發則自汗出 手足厥冷 其脈沈弦者”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前者는 惡寒·不欲食·臍部痛의 輕한 증상이며, 後者는 自汗出·手足厥冷의 重한 증상으로서 前者가

94) 魏荔澗: 此又平素陽虛陰盛하여 積寒在裏하여 以召外寒하여 挾雜於表裏而爲患者也라

95) 尤怡: 弦則衛氣不行而惡寒者는 陰出而痺其外之陽也오 緊則不欲食者는 陰入而痺其胃之陽也라

96) 尤怡: 白津은 汗之淡而不鹹者니 爲虛汗也오 一作自汗하니 亦通이라

97) 吳崑: 白汗者는 邪實於裏則表虛汗出 故로 曰白汗이라 白汗者는 氣爲陽하고 其色白也라

98) 吳謙 等: 此條엔 脈重出이나 下條는 有證無脈하니 其脈沈緊者之五字는 當在下條裏急之下라

99) 李炆: 緊則爲寒이오 沈爲在裏라

93) 李炆: 疝屬肝經하고 爲陰寒冷濕之病이라 肝經抵小腹하니 宜止小腹痛이로대 此에 云 腹痛并繞臍痛者는 篇首所謂虛寒從下上也라

弦緊한 脈이면 後者는 沈緊한 脈으로 變換한 것으로 思料된다.

18條. 當歸生薑羊肉湯證

【原文】

寒疝에 腹中痛及脇痛裏急者는 當歸生薑羊肉湯主之라

當歸生薑羊肉湯方

當歸三兩 生薑五兩 羊肉一斤

右三味를 以水八升으로 煮取三升하야 溫服七合호대 日三服이라 若寒多者는 加生薑成一片<sup>1)</sup>하고 痛多而嘔者는 加橘皮二兩 白朮一兩이라 加生薑者는 亦加水五升하야 煮取三升하야 二合服之라

【校勘】

1) 加生薑成一片: 醫統本에는 “加生薑成一斤”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直譯】

寒疝을 앓는 사람이 배가 아프고 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픈 경우에는 當歸生薑羊肉湯으로 治療한다.

當歸生薑羊肉湯方

當歸三兩 生薑五兩 羊肉一斤

위의 세 가지 藥材를 물 八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七合씩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만약 寒邪가 많은 경우에는 生薑을 一斤이 되도록 加하고 배가 아프면서 嘔吐를 하는 경우에는 橘皮二兩과 白朮一兩을 加한다. 生薑을 加할 경우에는 물 五升을 더 넣어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二合을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은 血虛寒疝의 治療를 서술하였다.

血虛하면 脈을 營養하지 못하고 寒邪가 많으면 脈이 萎縮되므로 배와 옆구리가 아프면서 당긴다.<sup>100)</sup> 따라서 治法은 正氣를 充養하는 것이 우선이고 寒邪를 驅는 것이 다음이다.<sup>101)</sup> 當歸는 通經活血하고, 生

100) 尤怡: 血虛則脈不榮하고 寒多則脈絀急 故로 腹脇痛而急也라

101) 吳謙: 養正爲本이오 散寒爲次라

薑은 溫中散寒하고, 羊肉으로 補하는데<sup>102)</sup>, 當歸는 血分의 壅滯된 것을 疏通시켜서 痛症을 멈추게 하고, 生薑은 氣分의 壅滯된 것을 宣通시켜서 痛症을 멈추게 하는데 君藥은 羊肉이다. 羊肉은 氣血을 갖고 있어 氣味가 濃厚하여 먹은 뒤에 濁陰과 하나가 되어 當歸의 活血하는 작용에 힘입어 血分에 壅滯된 것을 疏通시키고, 生薑의 銳利한 氣에 힘입어 氣分에 壅滯된 것을 宣通시키니 疏通되면 아프지 않게 되며 寒氣가 숨어 지낼만한 장소가 없게 되니 이른바 먼저 誘引한 다음에 攻擊하는 것이 이것이다.<sup>103)</sup>

當歸生薑羊肉湯을 사용하여 產後腹痛을<sup>104)</sup>, 徐는<sup>105)</sup> 低血壓性 眩暈을, 宋은<sup>106)</sup> 胃脘痛을 治療한 例를 報告하였다.

19條. 烏頭桂枝湯證

【原文】

寒疝에 腹中痛하고 逆冷하며 手足不仁하고 若身疼痛하야 灸刺<sup>1)</sup>와 諸藥이 不能治하면 抵當<sup>1)</sup>烏頭桂枝湯主之라

烏頭桂枝湯方

烏頭

右一味를 以蜜二斤으로 煎減半하야 去滓하고 以桂枝湯五合으로 和<sup>2)</sup>之하야 得一升後에<sup>2)</sup> 初服二合하고 不知면 卽服三合하며 又不知면 復<sup>3)</sup>加至五合이라 其知者는 如醉狀得吐者爲中病이라

桂枝湯方

102) 李炆: 當歸通經活血하고 生薑溫中散寒하고 ... 用羊肉補之라

103) 元犀: 方中の 當歸는 行血分之體而定痛하고 生薑은 宣氣分之體而定痛하니 亦人所共曉也라 妙在羊肉之多하니 羊肉은 爲氣血有精之物하야 氣味腥羶濃厚하니 入咽之後엔 卽與濁陰混爲一家하야 宣而得當歸之活血而血中之滯通하고 生薑之利氣而氣中之滯通하니 通則不痛而寒氣無有潛藏之地하니 所謂先誘之而後攻之者也라

104) 謝映盧醫案-卷五產後門.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2. vol3. p. 27.

105) 徐有全. 當歸生薑羊肉湯治療低血壓性眩暈. 浙江中醫雜誌. 1992. vol1. p. 33.

106) 宋付榮. 當歸生薑羊肉湯治驗. 實用中醫內科雜誌. 1990. vol3. p. 33.

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 大棗十二枚

右五味를 剉<sup>(4)</sup>하여 以水七升으로 微火煮取三升하여 去滓라

【校勘】

- 1) 炙刺: 醫統本에는 “灸刺”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 2) 以桂枝湯五合和之 得一升後: 醫統本에는 “以桂枝湯五合 解之 令得一升後”로 되어 있다.

【註釋】

- (1) 抵當: 至當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衍文으로 思料된다.
- (2) 和: 調味, 섞을 화
- (3) 復: 再也, 다시 부
- (4) 剉: 斬截, 도막질 좌

【直譯】

寒疝을 앓는 사람이 배가 아프고 손발이 싸늘하고 감각이 둔하고 몸이 아파서 뜸과 刺針과 모든 藥으로도 治療할 수 없으면 烏頭桂枝湯으로 治療하는 것이 마땅하다.

烏頭桂枝湯方  
烏頭

烏頭를 糶 二斤에 달여서 折半이 되게 하고 찌꺼기를 버리고 桂枝湯 五合과 섞어서 一升이 되게 한 뒤에 처음에는 二合을 服用하고 效果가 없으면 糶 三合을 服用하며 그래도 效果가 없으면 다시 五合을 服用한다. 效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술에 취하여 吐하면 病에 적응된 것이다.

桂枝湯方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 大棗十二枚

위의 다섯 가지 藥材를 썰어서 물 七升으로 은근한 불에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린다.

【考察】

본 條文은 寒疝에 表證을 兼한 경우의 症狀과 治法을 서술하였다.

腹中痛手足厥冷은 寒疝의 症狀으로서 陽氣가 안에서 끊어진 것이며, 手足不仁:身疼痛은 陽氣가 밖에

서 막힌 것이나<sup>107)</sup>, 醫師가 이를 알지 못하고 뜸과 刺針으로써 表 또는 裏만을 治療하면 邪氣가 除去되지 못하므로 낫지 않는다.<sup>108)</sup> 寒邪가 表와 裏를 모두 損傷시킨 것이므로 治療는 表裏를 함께 治療하여야 한다.<sup>109)</sup> 따라서 烏頭로써 裏部의 陰寒邪를 攻伐하는 것을 爲主로 하고 兼하여 桂枝湯으로써 營衛를 調和시키니 表裏를 함께 治療한다.<sup>110)</sup>

原文에 烏頭의 用量이 없는데 『千金要方』에 “秋乾 烏頭實中者五枚 除去角”이라 하였고, 『外臺秘要·卷七』에 “秋烏頭實中大者十枚 去皮生用 一方五枚”이라 하였고, 『醫心方』 또한 五枚로 되어있으니 이를 참고할 만하다.<sup>111)</sup>

烏頭桂枝湯을 사용하여 趙<sup>112)</sup>는 腹痛을, 周<sup>113)</sup> 牽丸疼痛을, 劉 등<sup>114)</sup>은 痺證을 治療한 例를 報告하였다.

20條. 裏實의 寒疝에 下法을 쓸 수 있는 脈象과 治法

【原文】

其脈이 數而緊<sup>1)</sup>은 乃弦이니 狀如弓絃<sup>2)</sup>하여 按之不移라 脈數弦者는 當下其寒이오 脈緊大而遲者는 必心下堅이오 脈大而緊者는 陽中有陰이니 可下之라

【校勘】

- 1) 其脈數而緊: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夫脈浮而緊”으로 되어 있다.

107) 尤怡: 腹中痛 逆冷은 陽絶於裏也오 手足不仁或身疼痛은 陽痺於外也라  
 108) 徐彬: 灸刺諸藥不能治者는 是或攻其內거나 或攻其外하여 邪氣牽制不服也라  
 109) 尤怡: 此는 爲寒邪兼傷表裏 故로 當表裏并治라  
 110) 吳謙: 故以烏頭攻寒爲主 而合桂枝全湯以和營衛 所謂七分治裏三分治表也라  
 111)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7.  
 112) 中西研究院西苑醫院編. 趙錫武醫療經驗. 人民衛生出版社. 1980. p. 83.  
 113) 周連三. 寒疝膨脹大汗亡陽案. 新醫學雜誌. 1978. vol12 p. 17.  
 114) 劉殿生 等. 娛附桂枝湯治療風寒濕痺98例臨床觀察. 黑龍江中醫藥. 1989. vol4. p. 20.

2) 弓絃: 醫統本에는 “弓絃”으로 되어 있다.

【直譯】

脈이 數하면서 緊한 것은 弦脈이니 形狀이 활줄과 같아서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脈이 數弦한 경우는 寒邪를 溫下하여야 하고, 脈이 緊大하면서 遲한 경우는 반드시 명치끝이 멎쳐있고, 脈이 大하면서 緊한 경우는 陽脈에 陰脈이 나타나는 것이니 溫下하는 것이 옳다.

【考察】

본 條文은 寒實에 溫下할 수 있는 病證의 脈象과 治法을 提示하였으며, 또한 한 가지의 脈象에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症狀와 脈象을 함께 參考하여야 疾病을 精確히 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脈이 數하면서 緊한 것은 數脈은 熱이고, 緊脈은 寒이니 이는 寒熱이 섞여서 이루어진 병이다. 緊脈의 形狀이 弓絃과 같다는 것은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곧 寒邪가 內部에 있어 매우 甚하게 막힌 것이니 열이 헤치지 않으면 正氣가 運行하여 陽氣가 도달하지 못한다. 이러한 脈이 寒疝의 病에 나타나는 것은 곧 下法을 쓸 수 있다.<sup>115)</sup>

吳謙은 “其脈數而緊乃弦 狀如弓絃 按之不移 脈數弦者”의 19字는 衍文이니 『傷寒論辨脈法』을 보면 알 수 있다. ‘當下其寒’의 4字는 ‘必心下堅’의 아래에 있어야 문장의 뜻이 이어진다.”<sup>116)</sup>고 하였는데, 『傷寒論辨脈法』에 “脈浮而緊者 名曰弦 弦者 狀如弓絃 按之不移也”로 되어 있어 ‘數’은 ‘浮’의 誤字임은 분명하나, 앞의 17條에 寒疝의 脈象을 “弦而緊”이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弦脈의 體狀을 알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활줄에 比喩한 것<sup>117)</sup>이므로 衍文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緊乃弦 狀如弓絃 按之不移”는 弦脈을 설명하는 것이고, “其脈 數而緊乃弦 狀如弓絃 按之不移”

는 뒤의 “脈弦數者”를 설명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緊脈은 寒이고, 大脈은 滑脈이니 滑脈은 數脈이 甚한 것으로서 또한 往來가 有力한 것이니 앞의 “數而緊”과는 다르다. 脈이 緊하면서 大할 뿐만 아니라 또한 遲脈이 兼해서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脈이 합쳐서 나타나는 것인데 緊大한 脈은 浮取 또는 中取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遲脈은 沈取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緊脈은 寒이고, 大脈은 熱이며, 遲脈은 寒厥의 邪氣가 下部에 쌓인 것이니 이는 下部에 寒疝이 있고 心下에 단단하게 막힌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心下가 단단하게 멎쳐 있으면 寒熱의 邪氣가 섞여서 있는 것이니 비록 寒疝이 下部에 있더라도 沈取하여 遲脈이 나타나는 것은 또한 下法을 쓸 수 있다.<sup>118)</sup>

“脈大而緊者 陽中有陰 可下之”에 대하여 魏荔澗은 心下는 陽分이니 寒邪가 안에 痞塞되면 눌렀을 때 단단하고 아프니 바로 傷寒論의 中痞證이다. 이는 陽分에 陰寒의 邪氣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그 寒邪를 瀉下시켜야 陽分이 맑아 질 수 있다.<sup>119)</sup>

附方

【原文】

外臺烏頭湯 治寒疝腹中絞<sup>(1)</sup>痛하고 賊風<sup>(2)</sup>入攻五藏하여 拘急 不得轉側하고 發作有時하고 使人陰縮<sup>(3)</sup>하고 手足厥逆이라<sup>(4)</sup>方見前

外臺柴胡桂枝湯方 治心腹卒中痛者<sup>(5)</sup>

柴胡四兩 黃芩一兩半 人參一兩半 芍藥一兩半 桂枝一兩半 生薑一兩半 甘草一兩<sup>(1)</sup> 半夏二合半 大棗六枚

115) 魏荔澗: 其脈數而緊은 數者는 熱也요 緊者는 寒也니 此 寒熱雜合而成之病也라 乃其緊之狀有如弓弦者는 按之 至於不移니 則寒邪在內 故로 格閉阻已甚하여 非開破之 則 不足以令正氣得行而正陽得達也라 則此脈得之於寒 疝은 亦有可下之機矣라  
116) 吳謙: 其脈數而緊乃弦 狀如弓絃 按之不移 脈數弦者之 十九字는 當是衍文이니 閱傷寒論辨脈法이면 自知라 當下 其寒之四字는 當在必心下堅之下라야 文義始屬이라  
117) 李廷: 恐人不知弦脈體狀 故로 又以弓弦比之라

118) 魏荔澗: 蓋緊者는 寒也요 大者는 卽滑也니 滑爲數之甚 者 而又往來有力者也라 卽前條脈數而緊之別見者也라 然不惟緊而大也 而且見遲하니 是三脈合爲一診也라 必 緊大於浮中取 而遲又在沈取之也니 是緊爲寒이요 大爲 熱이니 寒熱雜合於中部 而遲爲寒厥之氣獨積於下部也 此所以其人下有寒疝 而心下又見堅實痞塞之證也라 心下既堅은 知爲寒熱雜合之邪니 則雖有寒疝在下니 沈 取而見遲脈은 亦在可下之列矣라  
119) 魏荔澗: 心下는 陽分也니 有寒邪痞塞於中 卽按之硬痛하 니 如傷寒論中痞證也라 此爲陽分之中有陰寒之邪하니 必當下其寒邪而陽分始清也라

右九味를 以水六升으로 煮取三升하야 溫服一升호 대 日三服이라

外臺走馬湯 治中惡<sup>(4)</sup>心痛과 腹脹과 大便不通이라 杏仁二枚 巴豆二枚去皮心熬

右二味를 以綿<sup>(5)</sup>纏<sup>(6)</sup>撻<sup>(7)</sup>令碎하야 熱湯<sup>(8)</sup>二合으로 捻<sup>(9)</sup>取白汁하야 飲之면 當下라 老小量之라 通治 飛尸<sup>(10)</sup>鬼擊<sup>(11)</sup>病이라

【校勘】

1) 甘草一兩: 醫統本에는 “甘草乙兩”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絞: 急也, 급격할 교
- (2) 賊風(적풍): 異常氣候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邪氣를 말한다.
- (3) 陰縮(음축): 外生殖器가 줄어드는 병증.
- (4) 中惡(중악): 類中風의 하나. 나쁜 기운에 감촉 되어 생긴다. 갑자기 손발이 싸늘하고 얼굴빛은 파래지며 정신은 어리둥절하고 어지러우며 눈앞이 아찔하고 말이 헛갈리며 심하면 이를 악물고 정신을 잃고 넘어진다.
- (5) 綿: 木綿, 무명 면
- (6) 纏: 束也, 묶을 전
- (7) 撻: 撻也, 몽치로칠 퇴
- (8) 熱湯(열탕): 끓는 물.
- (9) 捻: 按也, 비틀 넘
- (10) 飛尸(비시): 勞瘵와 같음. 노채충이 폐에 침입하여 생긴 전염성을 띤 만성소모성 질병이다. 지금의 肺結核에 해당된다.
- (11) 鬼擊(귀격): 갑자기 칼에 찔리거나 끊어지는 것같이 아프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며 심할 때에는 피를 게우거나 코피가 나며 대변으로 피가 섞여 나오고 오줌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이 있는 병증.

【直譯】

附方

外臺烏頭湯 寒疝으로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賊風이 들어와 五臟을 攻擊하여 팔다리나 몸이 오그라

들면서 잘 쓰지 못하고 돌아누울 수 없고 일정한 時間에 發作하고 陰囊이 오그라들고 손발이 싸늘한 것을 치료한다. 處方의 내용은 앞에 있다.

外臺柴胡桂枝湯方 가슴과 배가 갑자기 아픈 것을 치료한다.

柴胡四兩 黃芩一兩半 人參一兩半 芍藥一兩半 桂枝一兩半 生薑一兩半 甘草一兩 半夏二合半 大棗六枚 위의 아홉 가지 藥材를 물 六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따뜻하게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外臺走馬湯 中惡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腹部가 脹滿하고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杏仁 二枚 巴豆 二枚를 껍질과心を 없애고 볶는다.

위의 두 가지 藥材를 무명천에 싸서 몽둥이로 두들겨 부수어서 끓는 물 二合에 넣고 우려내서 白汁을 取하여 마시면 泄瀉를 한다. 老人과 小兒에 따라 量을 달리 한다. 飛尸와 鬼擊病을 치료한다.

【考察】

烏頭湯은 이미 앞에서 寒疝에 사용한다고 나왔다. 寒疝의 原因은 寒邪인데, 평소에 體質이 陽虛陰盛하여 裏部에 寒氣가 쌓여 있고 바깥의 寒邪를 불러들여 表裏에 모두 寒邪가 있어서 발생된다<sup>120)</sup>. 風寒이 안으로 肝腎에 들어가서 脾를 乘侮하므로 腹中이 絞痛하고, 賊風이 五臟을 손상시키면 모두 病이 될 수 있으므로 “入攻五臟”이라 하였다. 邪氣가 經脈에 侵入하면 拘急하여 돌아누울 수 없고, 肝脈이 陰器를 循行하기 때문에 陰縮이 되고, 胃氣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手足厥冷하게 되므로<sup>121)</sup> 大寒大熱하여 散寒逐濕하는 烏頭를 사용하였다.

柴胡桂枝湯의 主治症은 『外臺秘要卷十七』에 “療寒疝腹中痛”으로 나와 있다. 처방의 구성이 小柴胡湯과 桂枝湯이 合方된 것으로 小柴胡湯은 清熱開鬱하고 和解陽明하며 桂枝湯은 調和營衛하고 解散風寒하므로 本方은 太陽經의 表邪와 少陽經證을 치료할 수

120) 魏荔澗: 此又平素陽虛陰盛하야 積寒在裏하야 以召外寒하야 挾雜於表裏而爲患者也라

121) 沈明宗: 風寒內入肝腎하야 乘侮於脾하니 腹中絞痛이오 而賊風傷於五臟이면 皆可致病 故로 謂之入攻五臟이라 邪入於經則拘急 不得轉側이오 由肝脈循陰器하니 使人陰縮이오 乘鬱胃氣不伸하니 手足厥冷이라

있다. 外感에 胸腹兩脇疼痛을 兼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sup>122)</sup> 魏荔洞이 “表裏兩解 寒熱兼除之法”이라 하였다.

走馬湯은 효과가 약효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便秘腹痛를 치료한다. 中惡·飛尸·鬼擊은 모두 臭穢惡毒한 邪氣를 感受하여 邪氣가 口鼻를 따라 心胸으로 들어가 腸胃의 기능을 壅滯시켜 寒實이 內結되어 發病이 急하고 疼痛이 極烈하므로 峻藥으로 閉塞된 것을 開通하고 積滯된 것을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巴豆로 主藥으로 삼았으며, 杏仁은 肺와 大腸의 氣를 疏通시켜서 邪氣가 아래로 나가도록 한다.<sup>123)</sup>

### 第 3章. 宿食

#### 21條. 宿食의 脈診과 治方

【原文】

問曰 人病에 有宿食<sup>(1)</sup>을 何以別之오

師曰 寸口脈이 浮而大하나 按之反濇하고 尺中이 亦微而濇이니 故로 知有宿食하니 大承氣湯主之라

【註釋】

(1) 宿食(숙식): 음식물이 消化되지 않고 胃腸에 머물러 있는 병증.

【直譯】

문기를 사람이 病들었는데 宿食이 있는 것을 어떻게 區別하는가?

스승께서 대답하시기를 寸口脈이 浮하면서 大하나 누르면 도리어 濇하고 尺中이 또한 微하면서 濇하니 이리므로 宿食이 있는 것을 아니 大承氣湯으로 治療한다.

【考察】

본 條文은 宿食을 脈診으로 診斷하는 것을 서술하였다.

浮大脈은 반드시 宿食의 脈은 아니지만 穀氣가 壅滯하여도 또한 浮大한 脈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飲食不節하면 陰分이 損傷되고 陰分이 손상되면 血이 먼저 손상되므로 누르면 脈이 도리어 濇脈이 나타나므로 脈이 浮大한데 누르면 濇脈이 나타나야 宿食이라 할 수 있다. 飲食物은 有形의 實邪이므로 비록 胃氣가 虛寒하고 命門火가 不足할지라도 標治를 하여야 하므로 宣通시키는 것이 正治이니<sup>124)</sup> 大承氣湯으로 막힌 것을 疏通시켰다.

#### 22條. 下利에 大承氣湯을 쓰는 경우

【原文】

脈數而滑者는 實也라 此有宿食이니 下之면 愈<sup>1)</sup>하니 宜大承氣湯이라

【校勘】

1) 下之愈: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當下之”로 되어 있다.

【直譯】

脈이 數하면서 滑한 경우는 實證으로서 宿食이 있는 것이니 瀉下시키면 治癒되니 大承氣湯으로 治療하는 것이 마땅하다.

【考察】

앞의 條文에 宿食의 脈象을 서술하였는데, 본 條文 역시 宿食의 脈象을 서술하였다.

滑脈은 穀氣가 勝한 것이니 만약 數脈에 滑脈을 兼하면 實熱이 이미 胃腑로 들어간 것이므로 宿食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

여기서 滑脈과 數脈의 關係는 滑脈이 爲主가 되고 數脈은 標가 되는데 이는 宿食이 머무르게 되면 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sup>125)</sup>

#### 23條. 宿食에 大承氣湯을 쓸 수 있는 病證

122)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30.

12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31, 332.

124) 魏荔洞: 食物은 爲有形之實邪하니 雖胃氣虛寒하고 命門火冷이나 亦當從標治也라 此蓋就脈濇而識其痞塞陰閉一以宣通爲正治라

125) 魏荔洞: 宿食停留하면 未有不生內熱者하니 此滑大爲本而數又其標也라

【原文】

下利하나 不飲食者<sup>1)</sup>는 有宿食也이라 當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大承氣湯方<sup>(見前瘧病中이라)</sup>

【校勘】

1) 不飲食者: 醫統本·蔡本『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不欲食者”로 되어 있다.

【直譯】

患者가 泄瀉를 하나 飲食을 먹지 않는 경우는 宿食이 있는 것이다. 大承氣湯으로 攻下하는 것이 마땅하다.

大承氣湯의 處方은 앞의 瘧濕喝病脈證并治에 있다.

【考察】

본 條文은 下利에 있어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는 것으로써 大承氣湯을 사용하는 鑑別點을 서술하였다.

下利에 裏虛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飲食을 먹지 않으려는 경우는 宿食으로 氣滯하여 燥屎를 排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大承氣湯으로 攻下하여야 한다.<sup>126)</sup>

大承氣湯은 반드시 燥屎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燥屎의 有無를 判斷하는 鑑別點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燥屎가 있는 것이고, 만약 飲食을 먹을 수 있으면 燥屎가 없다.

24條. 宿食에 吐法을 쓰는 경우

【原文】

宿食이 在上脘<sup>1X1)</sup>하면 當吐之니 宜瓜蒂散이라

瓜蒂散方

瓜蒂二分熬黃 赤小豆一分煮

右二味를 杵<sup>(2)</sup>爲散하고 以香豉七合으로 煮取汁하여 和散一錢匕하여 溫服之오 不吐者는 少加之라 以快吐爲度而止라 亡血及虛者는 不可與之라

126) 李炆: 下利裏虛 則飲食이나 其不欲食者는 宿食氣滯하여 不能推陳致新也라 故로 當下之라

【校勘】

1) 在上脘: 『脈經·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에는 “在上管”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上脘(상완): 胃의 上口, 즉 噴門을 말한다.

(2) 杵: 春杵, 공이 저

【直譯】

宿食이 上脘에 있으면 당연히 瓜蒂散으로 吐法을 해야 마땅하다.

瓜蒂散方

瓜蒂二分 누렇게 볶는다. 赤小豆一分 삶는다.

위의 두 가지 藥材를 공이로 찧어서 가루를 낸다. 香豉 七合을 삶아서 汁을 내어 약가루를 一錢匕만큼 타서 따뜻하게 服用한다. 吐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量을 더한다. 시원하게 吐하는 것으로 基準을 삼고 服用을 그친다. 亡血 또는 虛한 사람은 投與해서는 안 된다.

【考察】

본 條文은 宿食이 上脘에 있을 경우의 治療를 서술하였다.

宿食이 있는 部位에 따라 症狀과 治法이 다른데 上脘에 있는 경우는 사이를 두고 아프며 嘔吐를 하니 吐法을 쓸 수 있으나 下法을 쓸 수는 없고, 中脘에 있는 경우는 명치가 아프고 嘔吐를 하기도 하며 아프기는 하나 嘔吐를 하지 않기도 하니 吐法과 下法을 쓸 수 있고, 下脘에 있는 경우는 배꼽 위가 아프고 嘔吐를 하지 않으니 吐法을 써서는 안되고 下法을 써야 한다.<sup>127)</sup>

음식이 腸胃로 들어가면 앞의 條文들과 같이 下法을 사용하지만, 宿食이 上脘에 있어 아직 腸胃로 들어가 않았으면 위로 湧出시키는 것이 편한 방법이니 이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病邪가 上部에 있으면 吐法 등으로 越出시킨다.(其高者因而越之)”고 한 것이 이것이다.<sup>128)</sup>

127) 吳謙: 胃有三脘하니 宿食在上脘者는 隔間痛而吐하니 可吐不可下也오 在中脘者는 心中痛而吐커나 或痛不吐하니 可吐可下也오 在下脘者는 臍上痛而不吐하니 不可吐可下也라

128) 李炆: 食入腸胃하면 則宜下나 食在上脘則未曾入胃하니 氣從上涌爲便하니 內經에 云 其高者因而越之라하니 吐

### 25條. 宿食의 脈象

【原文】

脈緊이 如轉索<sup>(1)</sup>無常者는 有宿食也라

【註釋】

(1) 轉索(전삭): 새끼줄을 돌리다 몸에 맞아 강한 충격을 받는 감각.<sup>129)</sup>

【直譯】

緊脈이 마치 새끼줄을 돌리듯 一定하지 않은 것은 宿食이 있는 것이다.

【考察】

緊脈은 傷寒과 疼痛·咳嗽·喘息·胸滿 등을 주재하는 데 人迎이 緊하고 힘이 있으면 傷寒證이고 氣口가 緊하며 힘이 있으면 飲食傷으로 痛症이 치밀어 오른다. 또한 緊滑하면 宿食이 있거나 蛔蟲을 吐하게 된다.<sup>130)</sup> 이처럼 緊脈은 傷寒과 宿食에 同時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의 鑑別은 傷寒의 경우 浮取하면 緊하나, 宿食의 경우 緊脈이 새끼줄을 돌리듯 하며<sup>131)</sup> 또는 滑脈을 兼한다.

### 26條. 宿食의 脈象

【原文】

脈緊에 頭痛은 風寒<sup>1)</sup>이오 腹中은 有宿食不化也라 一寸口脈緊이라

【校勘】

1) 風寒: 李昉의 廣注에는 “惡風寒”으로 되어 있다.

【直譯】

患者의 脈이 緊脈인데 頭痛은 風寒으로 발생된 것이고, 腹中の 病은 宿食이 消化되지 않은 것이다.(어느 곳에는 寸口脈이 緊하다고 하였다.)

【考察】

가 是也라

129) 朴晳,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 164.  
130) 李樞: 緊則爲寒爲疼痛이요 爲咳爲喘爲滿胸이라 人迎緊盛은 傷寒證이오 氣口緊盛은 食冲冲이라 ... 緊滑은 宿食 吐蛔蟲이라  
131) 魏荔澗: 浮取得緊하면 知其外感이오 中取得如轉索은 卽滑大之別名也니 所以知其有宿食也라

앞의 條文과 같이 緊脈은 傷寒과 飲食傷에 모두 나타나지만, 脈에 있어서 傷寒은 浮脈을 兼하지만 宿食이 있는 경우에는 沈脈을 兼하거나 右關脈이 緊盛하며, 症狀에 있어서 傷寒은 身疼과 腰脊強을 隨伴하며 口乾을 잃지 않고 心窩部를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은 반면에 宿食이 있는 경우에는 身疼과 腰脊強을 同伴하지 않고 口乾을 잃고 心窩部를 눌렀을 때 痛症이 있는 차이가 있다.

## IV. 總括 및 結語

「腹滿寒疝宿食病脈證第十」은 腹滿寒疝·宿食 세 가지 疾病을 論述한 것으로 모두 胃腸과 關聯이 있고 또한 腹滿 또는 疼痛의 症狀이 있어서 病位와 症狀이 비슷하며, 또한 본 편에 나와 있는 治方을 세 가지 病證에 서로 應用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合하였다.

腹滿은 腹部가 脹滿하고 편안하지 않은 증상이지만 原文과 具體의인 處方과 症狀으로 미루어 보면 大개 疼痛을 隨伴하므로 본 편에서 學論된 腹滿은 腹部脹滿이 爲主가 되고 항상 腹部疼痛을 隨伴하는 일종의 病證이다. 『景岳全書』에는 별도의 分類를 하지 않고 雜症謨에 心腹痛門을 두어 上·中·下 三焦로 구별하였는데 上焦痛은 痛症이 膈上에 있는 것으로 胃脘痛에 해당되고, 中焦痛은 痛症이 中脘部位에 있는 것으로 脾胃의 病으로, 下焦痛은 臍下部位에 痛症이 있는 것으로 肝·腎·大小腸·膀胱病인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편에 제시되어 있는 處方들을 傷寒·溫疫·瘴氣·咳嗽·霍亂·腫脹·嘔吐·黃疸 등에 사용하였다. 기타 『萬病回春』에는 “痞滿은 痞塊의 痞가 아니니 곧 胸腹部가 그득하며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夫痞滿者 非痞塊之痞也 乃胸腹飽悶而不舒暢也)”고 하여 痞滿으로 보았고, 『醫宗金鑑』에도 별도로 腹滿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腹滿은 여러 病證에 同伴되는 하나의 症狀으로 보았기 때문에 별도의 門을 두지 않은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에는 腹滿을 따로 두어 腹滿形證에 본 편의 내용을 引用하고, 寒脹·熱脹·穀脹·水脹·氣脹·血脹·蟲脹의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寒脹이 4條의 虛

寒腹滿에, 熱脹이 9條의 表證을 겸한 腹滿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穀脹·水脹·氣脹·血脹·蟲脹은 본 편의 내용과는 큰 관련이 없고, 또한 본 편에 제시된 處方들이 寒門과 虛勞門에 활용하였다. 『外形篇』에 腹痛을 寒腹痛, 熱腹痛, 死血腹痛, 食積腹痛, 痰飲腹痛, 蟲腹痛으로 구분한 것이 오히려 본편의 내용과 많은 類似한 것으로 보인다. 寒腹痛은 寒邪가 侵犯하여 痛症이 계속 있으며 增減의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厚朴溫中湯·桂香散·沈香磨脾散을 사용하였다.<sup>132)</sup> 熱腹痛은 통증이 때로 아팠다가 멈추었다하고 아픈 부위가 發熱이 있고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아프며 大便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으로 調胃承氣湯·四順清涼飲, 黃芩芍藥湯을 사용하였다.<sup>133)</sup> 死血腹痛은 跌撲 또는 婦人의 産後 등의 원인으로 瘀血이 제거되지 않은 원인으로 발생하며 痛症의 부위가 일정한 특징이 있고 四物湯에 地黃을 빼고 桃仁, 紅花, 大黃을 加味하거나 혹은 桃仁承氣湯·消瘀散 등을 사용하였다.<sup>134)</sup> 食積腹痛은 腹痛이 심하여 大便을 보려하고 泄瀉한 뒤에 痛症이 輕減되는 특징이 있으며 平胃散에 山查·神麩·麥芽·縮砂·青皮를 加味하거나 木香檳榔丸 등을 사용하였다.<sup>135)</sup> 痰飲腹痛은 脈滑하고 반드시 小便不利의 症狀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芎朮散·四合湯을 사용하였다.<sup>136)</sup>

본 편에는 腹滿을 크게 寒熱·虛實로 區分하였는데, 臟腑의 관점으로 볼 때 虛寒腹滿은 脾, 實熱腹滿은 胃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辨證에 있어서는 腹滿이 때로 輕減되거나 눌려서 아프지 않거나 눌렀을 때 痛症이 더욱 심해지거나 舌黃苔黃 脈沈實하면 實證으로 구분하였으며; 治法에 있어서는 虛寒腹滿의 경우에는 溫補, 實熱腹滿의 경우에는 攻下法을 사용하였다. 虛寒腹滿의 경우에 腹鳴이 있고 腹部가 끓어지듯이 아프며 胸脇部가 脹滿하고 嘔吐를 하는 경우에는 附子粳米湯을, 가슴부위가 매우 차갑고 嘔吐를 하

여 음식을 먹지 못하며 腹部가 突起되며 손을 대지 못하게 腹痛이 있는 경우에는 大建中湯을 사용하였다. 實證腹滿은 寒實腹滿과 熱實腹滿으로 구분하여 熱實腹滿인 경우에 厚朴七物湯·大柴胡湯·厚朴三物湯·大承氣湯을 사용하였는데 發熱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脈浮數한 경우에는 厚朴七物湯을, 腹診時에 명치부위가 脹滿하고 아플 경우에는 大柴胡湯을, 腹痛과 大便閉의 경우에는 厚朴三物湯을, 腹滿이 전혀 輕減되지 않을 경우에는 大承氣湯을 사용하였다. 寒實腹滿의 경우에는 脇下가 한쪽 부위만 아프고 發熱하고 脈緊弦한 경우에는 大黃附子湯을 사용하였다.

『素問·骨空論』에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이라 한 것을 馬蒔가 “七疝은 五藏疝 및 狐疝 癪疝이다.”고 한 것과 吳昆이 “七疝은 寒疝, 水疝, 筋疝, 血疝, 氣疝, 狐疝, 癪疝이다.”고 한 것은 비록 七疝의 종류는 다르지만 後代의 疝氣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說文解字』에 “疝은 腹痛이다.(疝 腹痛也)”한 것과 본 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七疝과는 커다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腹滿·宿食과 함께 한 篇으로 聚合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疝氣病을 의미하지 않고 腹痛·症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편의 寒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病機는 陽虛寒盛이며, 주된 症狀는 배꼽주위의 極烈한 痛症과 汗出, 四肢冷, 脈沈緊이다. 寒邪로 인하여 배꼽주위가 아프고 痛症이 발생할 때 自汗·手足厥冷·脈沈弦한 경우에는 大烏頭煎을, 血虛로 인하여 腹中痛이 있으면서 脇痛있는 경우에는 當歸生薑羊肉湯을, 表症을 겸하고 腹中痛·手足厥冷·手足不仁한 경우에는 烏頭桂枝湯을 사용하였다.

宿食은 지금의 食傷과 같은 것이며, 본편에서 제시된 치료원칙은 宿食이 上部에 있는 경우에는 瓜蒂散으로 吐法을, 下部에 있는 경우에는 大承氣湯으로 下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其高者 因而越之 其下者 引而竭之 中滿者 瀉之於內”의 原則에 根幹한 것으로 보이며, 症狀는 脈은 微하면서 滑하거나 寸口脈이 浮大한데 누르면 도리어 澁하거나 尺脈 또한 微하면서 澁하고 泄瀉를 하고 음식을 먹으려하지 않는다.

132) 許俊.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415.

133) 許俊.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 415, 416.

134) 許俊.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416.

135) 許俊.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416.

136) 許俊.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417.

## 參考文獻

### <단행본>

1.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臺北. 志遠書局. 2003.
2.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集文堂. 2001.
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 韓醫學大辭典. 서울. 정담. 2001.
4.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5.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6.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益山.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7.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8.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9.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0. 魏荔澍.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11. 趙以德·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2.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3. 李彥.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4.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5.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6. 朱橚 撰.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7.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94.
18. 王水.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20.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21.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集文堂. 1991.
22.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台南. 綜合出版社. 1990.
2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24.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5.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대民族文化研究所. 1989.
2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7.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28.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2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30.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4.
31.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4.
32.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3.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34. 巢元方 著·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5. 蔡仁植·權賢德·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 癸丑文化社. 1983.
36.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37. 王叔和. 影宋版 脈經. 大板. 東洋醫學研究院. 1981.
38.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8.
39.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臺北. 裕昌德書局. 1960.
40.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香港. 知識出版社. 年度未詳.